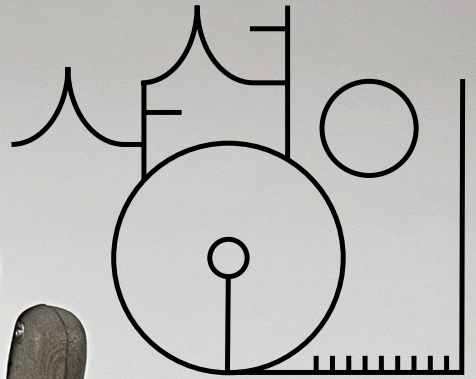


세상의 사이를 잇는 사회적 가치
SPC 사회성과인센티브

SOCIAL
PROGRESS
CREDIT

2023 / ISSUE.02



Technology
for everyone



표지 이야기

돈 때문에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더욱 품질 좋고 저렴한 전자 의수를 궁리하고, 만듭니다.
이처럼 적정기술은 인간의 삶을 변화하게 하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혁신 기술과 상상력으로 만드는 깨끗한 물

물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UN은 세계 인구 다섯 명 중 한 명은 마음 놓고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심각한 물 부족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고합니다.

물 부족 현상은 여러 원인에서 발생합니다.
인구 증가, 기후 변화, 환경 오염을 비롯해
지진 등의 재난으로 인한 생겨난 물 부족도 많은 이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특히 극빈 국가의 물 부족은 질병의 발생을 늘리고
식량 생산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가난을 더욱 더 심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WaterHealth International은
오염된 물을 걸러내고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물 정수 시스템을 개발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수많은 개발도상국에 배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오존 소독, 자외선 살균, 역삼투압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적용되어
유지 관리가 쉽고 전기가 없는 오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 재단인 Charity: Water는 '깨끗한 물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물 부족 지역에 안전하고 깨끗한 식수를 제공합니다.
기부금 100%를 물 프로젝트에 투입하는 한편, GPS 및 구글맵 기술을 활용해
프로젝트가 어디에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로 생겨난 우물에 원격 센서를 설치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지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죠.
이러한 노력은 기존 기부금 체제의 불투명성을 제거하며 많은 기부자를 이끌었습니다.

혁신 기술과 사회적 가치는 언뜻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나 디지털 일상을 사는 지금, 가장 효과적으로 시너지를 내는 결합이 아닐까요?
두 번째 <매거진 사성인>에서 더 많은 혁신과 그로 인한 소셜 임팩트를 만나보세요.

Contents

사성인 이야기

006

투아트
AI,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다

012

만드로
획기적으로 줄인 비용,
희망을 모두에게

020

시지온
악플 없이 생생한 인터넷 소통

026

테스트웍스
다름과 다양성이 우리의 경쟁력

034

숫자로 보는 사성인

특집 튀르키예 재난 지원

038

SPC 참여 기업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현장

039

특별 기고
거대한 재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무심한 일상의 소중함

042

재난의 어둠을 밝혀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조명

SPC의 모든 것

044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선순환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과학적 증거가 되다

045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개념 및 사례

046

사회적경제 분야 EBPM의 사례:
사회성과인센티브

047

EBPM으로서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048

성과비례보상 제도 확산
추진 현황

049

성과비례보상 협력 사업 협약 후
'협력 과정'

050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위한 사회성과인센티브 도입

SPC 2기 기업을 소개합니다

052

갓 졸업한 선배 기업의
활력과 노하우

055

사회성과인센티브(SPC) 2기
참여 기업 리스트

사성인 10문 10답

058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글로벌 품질을 검증하는
'K-기업의 K라벨'

SPC news

060

사회적가치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행사

062

CSES 출간 도서

064

CSES 채널 안내

066

SPC 애니메이션 소개



혁신 기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다

그동안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경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의 무한한 가능성은 앞으로의 미래를 더욱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은 기후 변화, 빈곤, 질병, 교육, 교통 등 인류가 마주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대규모의 데이터를 처리, 분석해 인간이 그동안 해결하기 힘들었던 어려운 문제들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성인 2호에서는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SPC 기업들을 만나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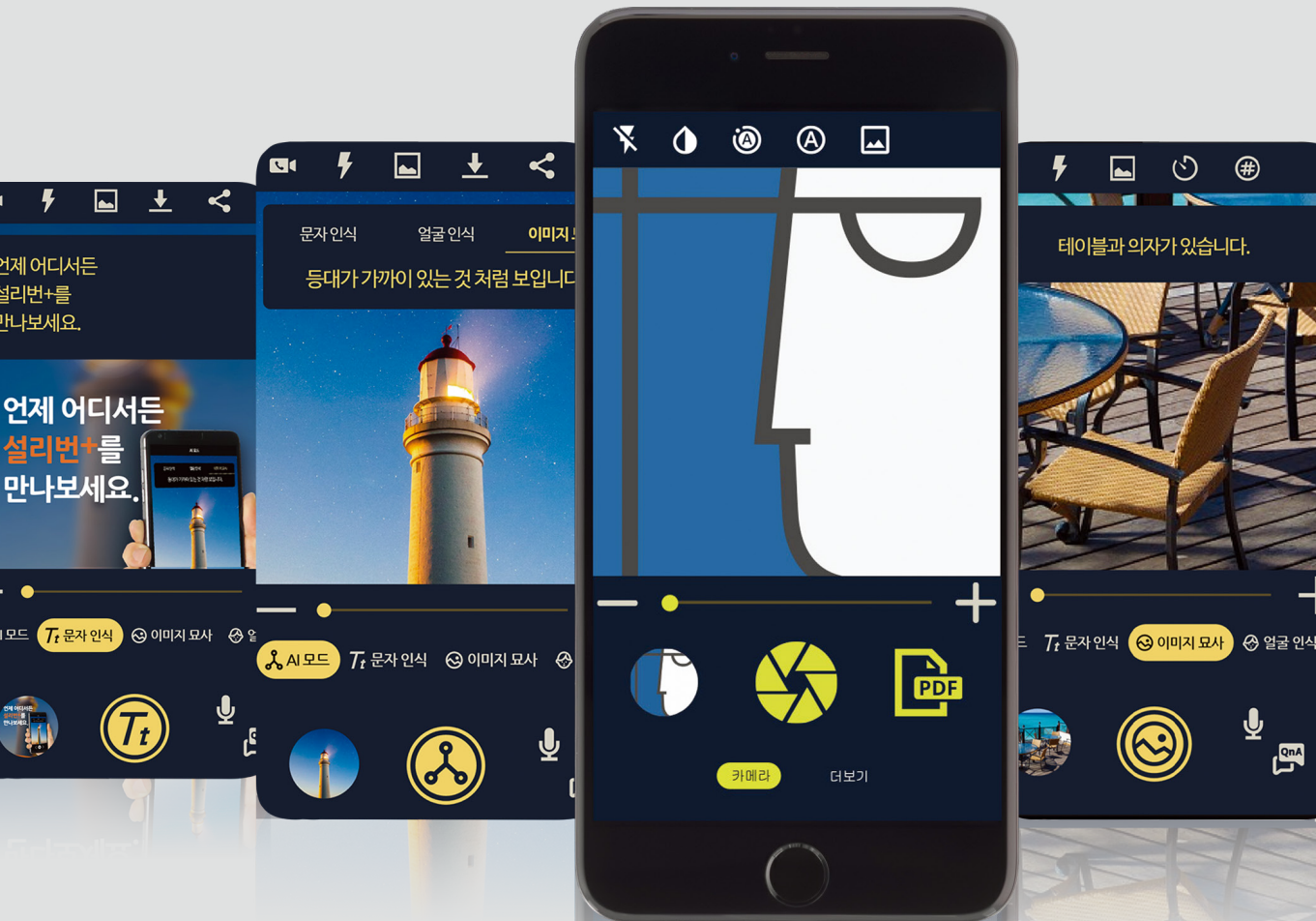
선한 의지와 첨단 기술이 만나 이룬 이들의 성과를 함께 살펴보세요!

● 투아트 ● 만드로 ● 시지온 ● 테스트웍스

세상의 모든 풍경 읽어주는 투아트의 어플리케이션

AI,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다

스마트폰에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는 현대인의 일상.
 그런데 시각장애인에게 스마트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투아트가 제공하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설리번플러스'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대신 보고 그대로 들려주는, 제2의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리번플러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은 길거리의 간판도, 라면 봉지에 쓰인 글자도,
 잡지 속 그림도 '들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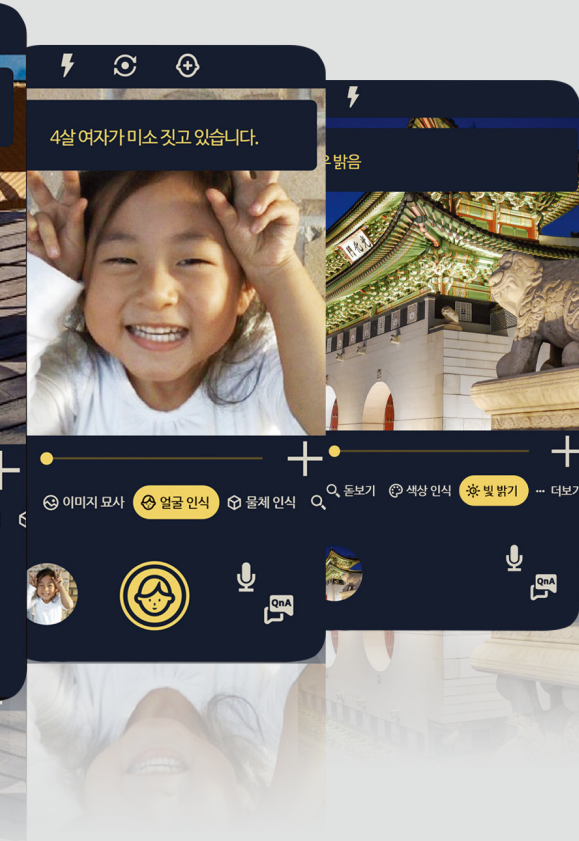
The Scene of Tu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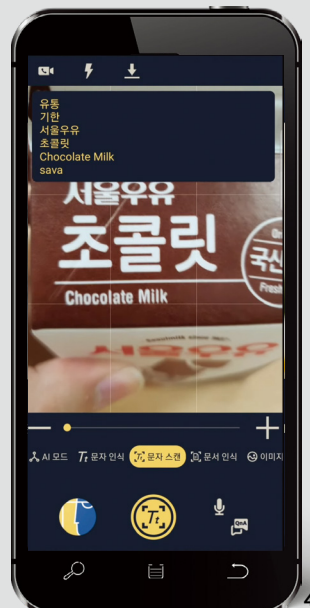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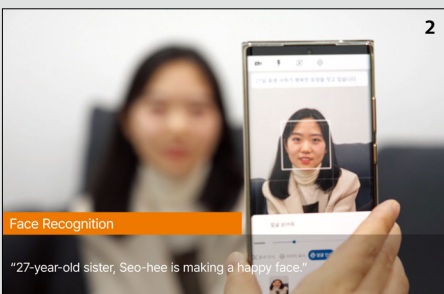
2018년 7월, 투아트는 설리번플러스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시 기반 시각보조 음성안내 어플리케이션인 설리번플러스는 시각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편하게 만드는 혁신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상이라는 한정적인 시장을 더욱 넓힌다는 취지가 있었지만, 설리번플러스의 탁월한 기능을 전 세계 모든 시각장애인이 공평하게 누리길 바라는 간절함이 보다 컸습니다. 세계 시장은 전혀 경험이 없었던 터라,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식으로 도전했는데요. 에이펙 베스트 어워드(APEA Best Award)라는 창업자 피칭대회에서 수상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세상에 설리번플러스를 점차 알릴 수 있었고, 세계 시각장애인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났습니다. 설리번플러스를 사용한 이용자의 리뷰 영상 콘텐츠가 수많은 언어로 제작되기도 했죠. 세계 각지에서 감사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특히 설리번플러스로 하고 싶었던 공부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인도에 사는 한 학생에게 온 메일은 투아트에게 큰 감동과 새로운 사명감을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 하나가 그전까지 고민해온 유료화 전환 문제를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설리번플러스는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는 눈이 된 것입니다. 만약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한다면 그들에게 눈을, 성장의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았습니다. 기존의 서비스를 무료로 유지하며 새로운 수익 구조를 찾아야 하는 숙제가 주어졌지만, 뜻이 있다면 길은 늘 생겨난다는 믿음을 투아트는 잃지 않았습니다.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라는 의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시원하게 큰 화면을 터치하여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게 스마트폰의 장점이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오버'나 '토크백' 같은 접근성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기반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투아트 역시 시각장애인이 텍스트나 이미지를 촬영하면 그 사진 속 글자나 색상 등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투아트의 조수원 대표를 만나 창업부터 글로벌 서비스를 펼치는 지금까지,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우리 일’의 비전과 가치

조수원 투아트 대표는 원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구 토박이인 그녀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부분 수도권 등지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대구의 인재들이 더이상 떠나지 않고 지역에 머무를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대신 탄탄한 중소기업이라도 많이 있다면 고향의 젊은이들이 지역을





1 투아트의 조수원 대표. 대표는 창업 이후 사업 경험을 쌓을수록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더욱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2, 4 투아트가 제작 및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리번플러스의 화면. 카메라가 인식한 대상의 이미지를 말로 설명해준다.

3 실제 시각장애인이 설리번플러스를 시연하고 있다.

떠나지 않고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변에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흘려 듣지 않은 누군가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젊은 팀을 조수원 대표에게 소개해주었고 그게 창업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수원 대표는 이 과정을 '어쩌다 창업'이라 표현합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창업의 계기 자체가 지방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품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투아트(Tuat). 처음에는 소프트웨어 용역 업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 없이 2년 이상이 흘렀죠. "외주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남의 것을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어떤 창업자가 무언가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대신 만들어 현실화하는 거죠. 그런 일만 계속 하니까 힘이 빠지더라고요. 남의 꿈만 실현시키고 있으니까. '우리 일'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그렇고 직원들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막상 무엇을 해야 할지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비타민 말고 밥 같은 걸 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를 찾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구성원의 친구 한 명이 질병으로 안타깝게도 시각장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שלי번플러스를 만드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일'로 이어졌죠."

작은 모험이 가닿은 세계라는 무대

שלי번플러스는 처음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사실 회사의 입장에서 외주 용역은 달콤한 꿀과 같습니다. 일을 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업무의 대부분이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일이 몰릴 때 몰리고 없을 때는 아예 없으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밤새 야근을 하며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을 갈아 넣어야' 하는 형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직원들은 회사에서 비전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조수원 대표는 외주 용역에 의존하던 운영 방식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단을 내리고, 자체 서비스인 שלי번플러스를 시작했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죠. 출시하고 얼마 안돼서 LG유플러스가 우리 서비스를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여타 대기업과는 다르게 저희 크레딧을 유지하며 사업 제휴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שלי번플러스를 더 널리 알릴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투아트는 서비스 출시 1년 후, 글로벌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Talk about SPC

투아트 조수원 대표

앞으로 SPC에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사회성과인 센티브가 경쟁률이 무척 높지만 일단 선정되면 지원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지원 사업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알고 보니 취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늦게라도 알게 되었고, 지원 기업으로 선정되어 정말 행운이라 생각해요. 결국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제대로 성장해서 기틀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그 소중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CES, MCW 등 다양한 해외 전시에 참가하셨습니다. 다른 테크 관련 SPC 기업들과 그 노하우를 나눈다면? 투아트의 경우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 후에 글로벌 서비스를 바로 시작했잖아요. 글로벌로 꼭 진출해야 한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갔지만 한편으로 너무 막막하기도 했어요. 잘 모르니 오히려 겁이 없었던 것도 같아요. 해외 피칭대회에, 영어도 잘 못하는데 겁 없이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차근차근 시도하다 보니 눈앞에 디딤돌이 하나씩 놓이며 길이 생기더라고요. 대표님들은 모두 바쁘죠. 살인적인 일정이지만, 너무 귀찮고 힘들어도 어떤 시도는 해야 해요. 어려운 상황에도 일단 부딪히면 예상치 못한 기회가 반드시 찾아와요. CES 같은 경우는 MWC보다 상을 훨씬 많이 주고 국내에 더 잘 알려져 있지요. 예를 들어 CES에 출품을 하고 수상하면 나중에 R&D나 지원 사업에 가산점이 붙고 금융권에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기업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꼭 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가 됐는데 그 경험도 있다면 우리를 더 빛나게 하죠.

세계에 투아트의 기술을 알릴 활로를 찾기 위해 에이펙 베스트 어워드(APEA Best Award)에 참가해 수상한 것은 조수원 대표 개인에게는 잊지 못할 경험이었고, 회사에게는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수상 이후 구글의 광고 플랫폼을 통해 שלי번플러스의 광고도 진행하면서 글로벌 사용자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광고가 끝난 다음에도 이 추세는 지속되었는데요. 말 그대로 '글로벌 입소문'이 난 것입니다. 시장 조사를 하다가 우연히 유튜브에 שלי번플러스의 리뷰 영상이 150개나 올라와 있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시각장애인을 어플리케이션은 홍보에 어려움이 많 습니다. 시각적인 광고를 한다 해도, 당사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개 그들의 가족이나 친구가 보고 알려주는 방식이죠. 그런데 사용 당사자들이 직접 우리 서비스를 써보고 다른 장애인에게 권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동적이었죠."



투아트 사무실의 현판.
TUAT는 옛 이집트 신화에
등장하는 죽음의 저편을
뜻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빛과 재생을 상징하기도
한다.

선한 마음이 모여, 완벽에 다가가는 서비스

투아트는 셸리번플러스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와 영어로만 서비스되었지만 이후 다양한 언어권에게 속한 장애인들의 입장도 충족해야 했습니다. 일본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이후 서비스 언어가 6개로 늘어났고, 글씨 쓰는 방향이 반대라 이런 종류의 서비스에서 소외되기 쉬운 아랍어도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맞게 UI와 UX도 다듬어서 제공했죠. 무료 어플리케이션으로서 이러한 선택과 노력은 모두 회사의 비용이자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외면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투아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전 세계에서 편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매일 하나를 받았어요. 자기가 이탈리아 사람인데 여자친구가 시각장애인이라요. 여자친구가 셸리번플러스를 잘 쓰고 있는데, 이탈리아어가 지원되지 않아 불편한 점이 있다. 내가 직접 번역을 해보고 싶다. 그런 내용이었죠. 많은 분들이 세계 각지에서 번역으로 재능기부를 해주고 있어요. 자동번역기의 어색한 표현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렇게 현재 번역 지원된 언어가 22개가 되었죠.”

하나둘 모인 자원봉사자 덕분에 셸리번플러스는 22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 각지 대부분의 시각장애인이 자국의 언어로 세상의 풍경을 귀로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셸리번플러스 어플에는 ‘Thanks’라는 항목을 두어 전세계 자원봉사 번역가의 이름을 표기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죠.

한계에 도전하는 꾸준함으로,

2018년 셸리번플러스가 세상에 나온지 5년. 무료 서비스를

고수하던 투아트가 처음으로 유료 서비스 ‘셸리번A’를 내놓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일상뿐 아니라 업무를 보다 완벽하게 수행하게 돕는, 비즈니스 특화 서비스입니다. 기존 셸리번플러스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글귀나 이미지를 음성으로 들려주며 시각장애인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지 속 긴 분량의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는 방식의 서비스를 업무에 활용하기에는 효율성이 다소 떨어지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투아트는 이러한 단점을 개선한 셸리번A를 개발했습니다. 셸리번A에 탑재된 AI는 문서 종류를 빠르게 파악하여 각 문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줍니다. 또한 본문 중 특정 단어를 검색할 수도 있으며, 명함이나 영수증의 정보를 인식하는 기능도 훨씬 개선되었습니다. 일상을 영위하는 데 꼭 필요한 셸리번플러스는 무료로 유지하되, 업무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즉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용자의) 셸리번A는 유료로 서비스하는 투트랙 전략입니다.

투아트는 사회성과인센티브 8기에 선정된 신임 ‘사성인’입니다. 조수원 대표는 사회적 가치를 힘있게 실천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길 바란다라고 전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이윤을 남겨 큰 성장을 이루는 것도 물론 멋진 일이지만, ‘해야 하는 일, 꼭 필요한 일’을 지속하는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한 기업 역시 칭찬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노고를 알아주는 사회 분위기를 함께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가끔은 칭찬을 듣고 싶으니까요. SPC 역시 같은 맥락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한 의지를 믿으며 꾸준하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투아트의 활약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Interview with Members

투아트 팀장
박찬용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투아트에서 백핸드와 웹개발, 그리고 SI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찬용입니다. 창업할 때부터 함께 해서 7년 정도 일했습니다.

창업 멤버로서 요즘 회사의 성장을 보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들어온 첫 회사이기도 합니다. 입사했을 때보다 회사가 많이 나아졌고, 앞으로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발자로 들어와서 이런저런 외주 업무 중심으로 꾸려가다가, 어느날 대표님이 '우리만의 서

비스를 찾아보자' 제안하셨습니다. 우연찮게 제 후배가 갑자기 시력을 잃어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사의 서비스로 연결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업무의 일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특히 시력장애인분들께서 좋은 피드백을 주실 때 무척 기쁩니다.

설리번플러스와 같이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일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어플리케이션 피드백을 살펴보면 서비스 자체만이 아니라 개발자도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설리번플러스가 대외적으로 선한 서비스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고, 이게 업무 개념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가 도움이 될지 생각도 해봅니다. 원래 길에서 시각장애인분들 보면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로 제 마음가지미가 달라졌음을 느낍니다. 시각장애인이 평소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하고, 일상에서 불편한 지점이 어디인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후배분도 설리번플러스를 사용하고 계실까요? 후배가 저희 쪽에서 지금 간단한 업무 같은 것도 하면서 서비스 테스트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 우리 서비스가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함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SI 모델도 특정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조금 더 쉽게 휴대폰 앱을 사용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남아 있으면서 서울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하시나요? 저는 대구 토박입니다. 제 친구들도 서울, 판교 가서 많이 일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남의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만족하거든요. 서울이나 판교에서 일하는 친구

들 보면 일단 큰 회사에 갔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은 그렇게 없고, 일단은 직원이니까 자신의 업무 중심으로만 일을 하는데 야근도 많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창업 멤버니까 주인의식이 있고요. 제가 하고 싶은 걸 시도할 수 있고 야근도 별로 없습니다(웃음).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창업 멤버가 아닌 사람도 직원으로 올 텐데, 그분들이 회사의 비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걱정이 되네요. 새로 참여할 구성원이 회사의 비전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제일 몸으로 느끼는 건 환경 문제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미세먼지부터 확인하고 마스크를 낄지 말지 결정하는 분들 많잖아요? 사회적 불평등도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동안 기업이나 전 세계가 이익을 추구하면서 조금은 등한시했던 문제들이 점점 쌓여 지금의 환경오염도, 불평등도 심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술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치가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이 보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하고 싶고요.

만드로가 만드는 놀라운 가성비 3D 전자 의수

획기적으로 줄인 비용, 희망을 모두에게

사고나 질병으로 손을 잃은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따릅니다. 의수는 사용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며, 진동 기능이 있다면 물건을 집거나 놓는 등의 동작으로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전자 의수는 일반인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만드로의 이상호 대표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수천만 원대의 해외 제품과 비슷한 품질의 전자 의수를 수십분의 일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The Scene of Mand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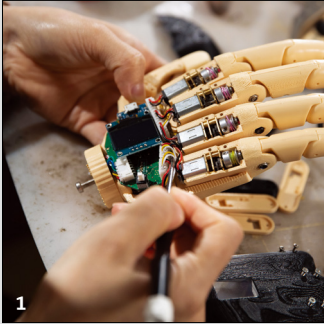
만드로 이상호 대표에게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앞으로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인데 팔이 선천적인 장애로 기타를 칠 수 없다며, 기타 피크를 잡을 수 있는 의수를 제작해달라고요. 학생은 태아 때 손이 탯줄에 감겨 있어 팔이 절반 정도밖에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기타 전용 의수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은 만드로에게도 처음이었습니다. 당시 일이 너무 바쁘기도 했던 터라, 이상호 대표는 이 요청에 대해 몇 번이나 고민했는데요. 학생의 열정과 노력을 보면서, 만드로의 기술이 그에게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만드로는 기타 피크를 잡을 수 있는 의수를 제작해 학생에게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기타를 잡는 것이 서툴렀지만,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이제는 의수를 사용하여 아름다운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대학교에 진학하여 실용음악 과정을 수료하고 자작곡으로 공연도 하며, 자신의 앨범도 발매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기술적인 해결책이 어떤 사람에게는 꿈을 이룰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에 이상호 대표는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적정 기술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하며 진정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깨달음과 함께 말입니다.

만드로?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언가를 '만드는' 회사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만드로는 3D 프린팅을 이용하여 의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3D 프린팅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3차원 객체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물질을 층층으로 쌓아올리면서 3D 모델을 만듭니다. 빠르게 소규모 제작이 가능하며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물체를 만들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3D 프린팅 기술로 의수를 만드는 아이디어가 지금의 만드로를 있게 했습니다.

좋아하는 걸 제일 잘해서 결심한 창업

만드로 이상호 대표는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3년만에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직장생활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20년 후, 30년 후의 미래를 생각하면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끝날 것 같은 막연한 두려움이 왔기 때문입니다. 퇴직하면 무엇을 할지 모를 상황을 피하기 위해, 지금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했죠. 그렇게 2014년 3D 프린팅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는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다가 프로그래밍에 빠졌어요. AI 프로그래밍을 시작했는데 주변 반응이 의외로 좋더군요. 저에게는 재미로 하는, 취미의 연장인데 공모전에서 수상도 하게 되고요. (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죠. 창업을 할 즈음에 3D 프린팅에 관심이 있었어요.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고



1

네트워킹에도 참여했죠. 제 전공이 소프트웨어이기도 해서, 3D 프린터를 좀 더 쓰기 편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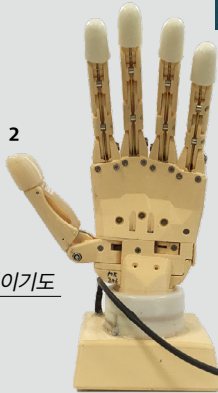
재능기부에서 본격적인 사업화로

보급형으로 나오는 3D 프린터도 좋은 소프트웨어를 쓰면 산업용 못지 않은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만드로. 그런데 갑자기 전자 의수 제작으로 방향을 바꾼 계기는 3D 프린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었습니다. 30대 가장이 일하다 사고로 양손 손목이 절단되었다는, 수입 의수가 너무 비싼데 3D 프린터로 의수를 제작할 수 있을지 문의하는 내용이었죠. 이상호 대표는 동갑내기인 사람에게 닥친 불행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중에 프로토타입(시제품)이라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댓글을 달았죠. 그때부터 재능기부식으로 만드로의 의수 제작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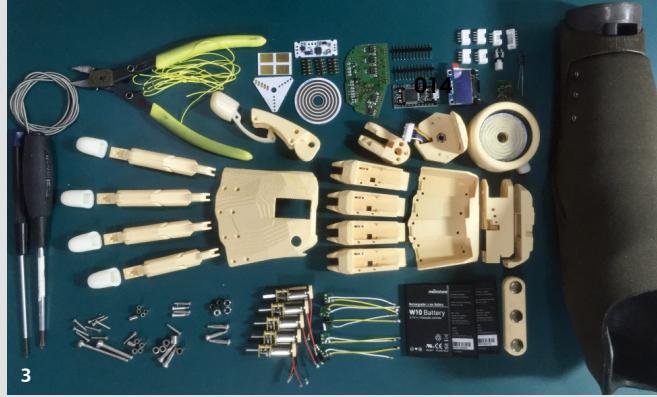
“처음엔 사실 재능기부만 하고 빠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 계속 시행착오만 있었죠. 재능기부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아주 잘 만들어도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까 말까죠.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에만 절단 장애인인 14만 명 이상이라 하더군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한 명을 위해 맞춤 제작을 재능기부로 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았죠. 책임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도움과 시행착오가 만들어낸 성과

만드로가 처음 전자 의수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쓸 만한 프린터를 제공받기도, 특허 출원 전문가의 도움도 있었습니다. 사업의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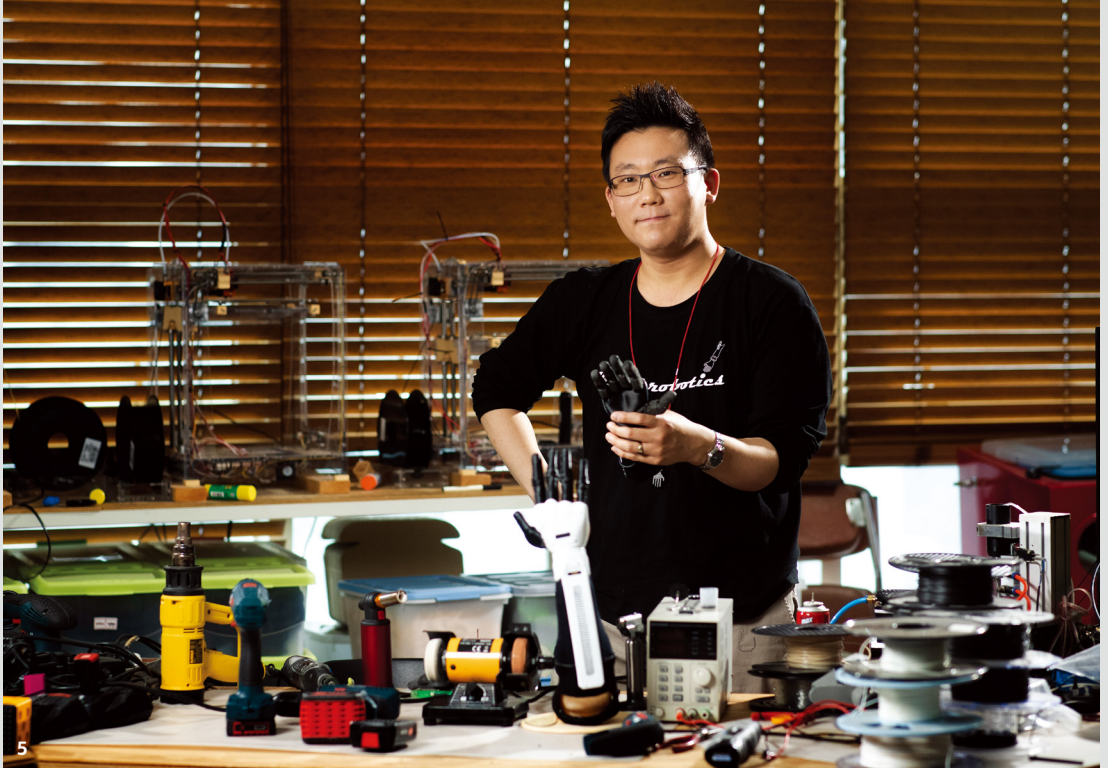
3

- 1,2 3D 프린팅 기술을 사용해서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좋은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만드로의 미션이자 전략이다.
- 3 만드로의 의수는 기존에 상용되는 기술이나 부품을 쓰는 게 아닌, 모든 요소를 새롭게 개발·제작한다.
- 4 2020년 2월에 제작한 손바닥 절단장애인용 전자 의수.
- 5 마치 장인의 공방을 떠오르게 하는 만드로 사무실에서, 이상호 대표.



4

가치를 알아본 주변의 격려와 지원이 하나씩 모여 값싸고 품질 좋은 전자 의수를 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국내 전자 의수 시장은 규모가 작고 대부분의 생산이 맞춤 제작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 전통식 전자 의수는 가격도 비싸지만 무겁고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한쪽 손을 잃어 전자 의수를 장만할 경우 초기 비용이 4천만 원 이상이 들고, 고비용으로 마련했다 해도 내구 연한의 한계로 5년 정도밖에 쓸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요는 있지만 실제로 쓰는 사람은 0.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드로는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존의 기술이나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모든 것을 직접 새로 개발하여 제작했습니다. 3D 프린터를 최대로 활용하여 제작비를 줄였습니다. 플라스틱 재료라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2016년 7월 만드로의 첫 전자 의수가 출시됩니다. 시행착오 끝에 출시된 마크 시리즈는 최근까지도 수정과 보완을



Talk about SPC 만드르, 이상호 대표

SPC에는 어떤 계기로 참여하게 되셨나요? 처음 SPC에 대해 알게 된 것은 2018년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가치연구원 에 계셨던 허승준 수석님이 직접 소개를 해 주셨고 그 계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측정 당시 어려움이 있었다면 무엇이었나요? 만드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기존 절단 장애인용 전자 의수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측정은 기존 전자 의수의 가격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했는데, 기존 전자 의수의 가격과 우리 제품을 비교하면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만 기존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모두 경쟁자이기 때문에, 직접 견적서를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예로 유럽의 O사의 다섯 손가락 전자 의수는 대략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에 국내에 판매하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견적서를 취득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상충하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특정한 소수를 위한 제품과 기술이기에 측정 자체는 쉬울 수 있어도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측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SPC 이후 만드르에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SPC를 통해서 사회성과에 관심을 두는 여러 회사의 대표님들을 만난 것이 첫 번째 변화이고, 사회성과인센티브를 받아서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좀 더 줄 수 있었고 동기 부여를 할 수 있게 한 것, 그리고 소소하지만 새로운 제품의 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 정도가 있습니다.

SPC 졸업 기업으로서 후배기업, 혹은 SPC에 남길 조언이 있다면? 사업에는 선후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새로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려는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성과를 이루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과정에서 회사를 이루는 구성원을 잃지 말고 함께 가야 합니다. 사회성과와 함께 더 중요한 것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니, 충분히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시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만드로 의수 제작 워크샵에서 보성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든 의수를 기증받은 요르단 학생. 직접 착용한 사진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거듭하여 업그레이드 되었죠.

이러한 만드로의 노력과 사회적 가치는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K-Global 디지털콘텐츠 랩 스타트업', 2016년에는 코이카의 창의적가치창출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했죠. 또한 요르단 내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전자 의수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로도 판매가 활발했습니다. 해외 시장의 개척은 좁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돌파할 최고의 대안으로 기대됩니다.

가난이 장애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There shouldn't be anyone who cannot afford a prosthetic limb because of money(돈 때문에 보조 기구를 구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드로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문구입니다.

“그 메시지가 우리 회사의 철학이자 비전이에요. 돈이 없어서 전자 의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그게 유일한 목적이니, 일단 달성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도 생겨나고요. 다만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회사가 영위할 수 있느냐 역시 중요한 문제잖아요. 회사도 생존을 해야 이 일을 계속하는 거니까. 그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숙명 같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남들보다 더욱더 도전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하고요. 기술 개발에 최대한 많이 몰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케팅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술에만 집중을 하죠.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으로 누구보다

싸게, 자체 기술로 잘 만들어야지 성립이 되거든요. 매일매일 시행착오를 겪지만 그게 저희가 가진 숙제고 그게 잘 되어야 이 문제가 풀린다고 믿습니다. '이익을 위해 우선 더 제품을 비싸게 잘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미션은 결국 사람들이 가진 비용이라는 한계를 가급적
도전적으로 풀어서 회사도 적당한 이익을 내서 망하지
않고 고객분들도 충분히 합당하다 생각할 정도의 가격대를
만들면서 제품을 만드는 것. 그게 저희가 당연한 과제고요.
그게 되면 이 일은 당연하게도 성공하겠죠.”

갑작스럽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내던져진 사람들. 스스로 물건을 잡고 기타를 치고, 칫솔을 쥐고 양치하는 별 것 아닌 일상이 그들에게는 눈물겨운 열망의 순간일 것입니다.

만드로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마주하며, 각자에 가장 잘 맞는 일상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9년 동안 쌓인 노하우와 기술로 만드로는 절단장애인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만드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장기적으로는 손이 불편한 분들이 일상을 전혀 불편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돕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걸 전 세계로 보급을 하고요. 실현된다면 회사도 더 성장할 것이고 안정적으로 굴러가지 않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올해 열심히 해서 자금을 확보하고,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싶습니다.”

성실하게 신념을 향해 걸어가는 만드로의 모습에서 그들의 미션이 이루어진 미래의 어느 날이 그려집니다. 더이상 가난이 장애의 '당연한 이유'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Interview with Members

만드로 의지보조기 기사

조하현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드로에서 의지보조기 기사를 담당하고 있는 조하현입니다. 전반적인 의수 제작과 연구, 의수 착용부인 소켓을 설계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관련 전공을 하신 건가요?

네 의지보조기학이라는 전공이 있습니다. 의수와 같은 보조기를 제작하는 방법이나 여러 의료 지식을 배우는 학문이고요. 그 공부를 하고 만드로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드로에서 일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에서 바뀐 점이 있을까요? 대표님은 돈이 없는 장애인도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창업도 그런 이유로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할 때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하이엔드 제품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만드로에서 직접 장애를 가진 분들을 만나고 겪고 계신 상황을 보니까, 꼭 비싸고 수준 높은 제품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일상에서 편하게 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 그분들께 더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드로 직원 중 가장 오래 일을 하셨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겠지만 가수 지망생인 친구에게 기타용 의수를 만들어준 때가 참 기억에 남아요. 제일 우리 제품을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하고요. 그리고 괴사로 손목을 절단하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배우자분께서 항상 전화 주셔서 제품이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는지, 더 좋은 제품이 나오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아내분의 불편함을 안타까워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늘 노력하는 모습에 정말 사랑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만드로는 어떻게 성장할까요? 요즘 거의 매달 업그레이드를 하는 수준으로 연구를 타이트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해외에도 지금 분쟁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한 분쟁 지역으로 시장을 확장해서 더 많은 분이 우리 회사의 미션처럼 적은 돈으로도 좋은 전자 의수를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만드로 임팩트



기업명	만드로
대표자	이상호
참여기수	2019년, SPC 5기
홈페이지	http://mand.ro
주요사업	만드로는 '돈이 없어서 전자 의수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라는 기본 원칙으로, 기존보다 30분의 1의 저렴한 가격, 더욱 가벼운 전자 의수를 개발하여 판매합니다.

Problem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소셜 미션: 기존 시장에서 배제된 상지절단 장애인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Stakeholders

사회 편익 얻는 이해관계자

전자 의수가 필요한 상지절단 장애인
(기존 전자 의수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여
상지절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Solution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



- 상지절단 장애인을 위한 3D프린팅 전자 의수 개발
- 기존 고가의 전자 의수보다 저렴하게 판매·보급

사회서비스 성과

*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하여,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합니다.



고용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환경 성과



사회서비스 성과

Measurement

솔루션 측정과 비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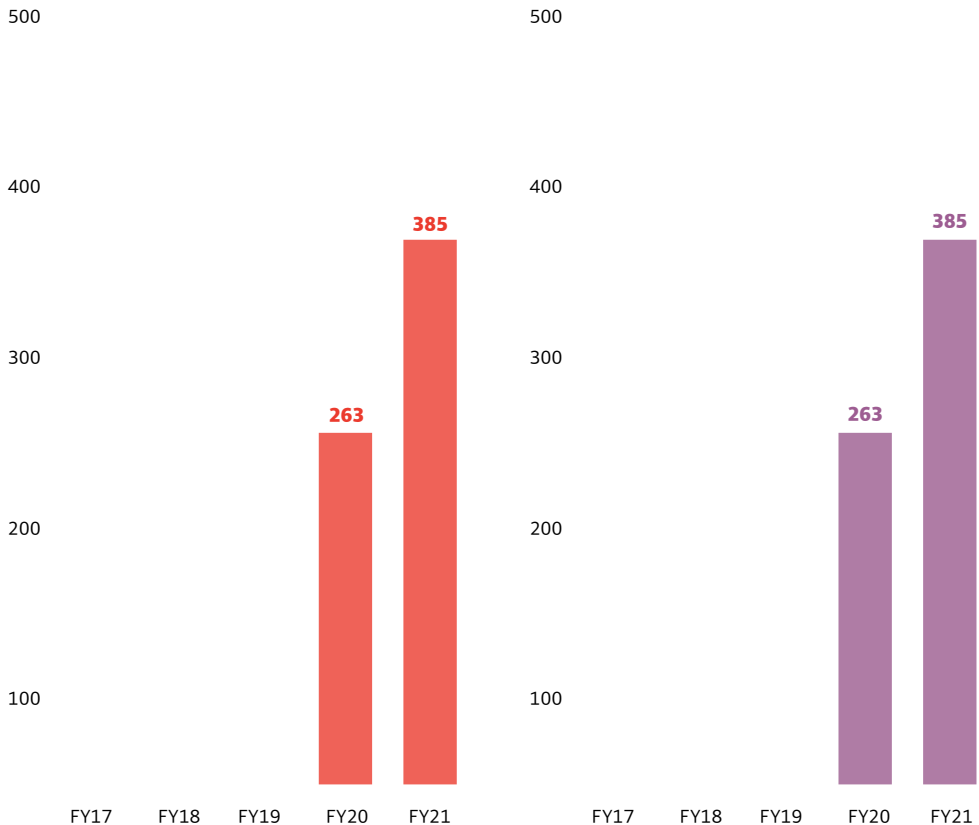
기존 3D 전자 의수 제품 간 가격 비교

*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추정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Social Performance 산출된 사회성과 단위: 백만 원

사회서비스 성과

총 성과



건강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시지온의 솔루션

악플 없이 생생한 인터넷 소통

악플(악성 댓글)은 인터넷에서 특정 대상을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는 댓글을 말합니다. 익명으로 누구나 쉽게 달 수 있기 때문에 종종 매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을 담기도 하는데요. 신문기사부터 개인 SNS까지 수없이 존재하는 악플의 대상이 되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시지온은 이러한 악플의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줄인 댓글 플랫폼으로 보다 깨끗한 인터넷 소통 환경을 일구고 있습니다.

시지온은 2009년 설립된 IT 기업으로 'Civilization'에서 따온 사명처럼,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로 올바른 커뮤니케이션을 주도하여 인터넷 세상의 문명에 기여하자는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라이브리(LiveRe)'는 지금의 시지온을 있게 한 한국 최초의 소셜 댓글 서비스인데요. SNS를 통해 간편하게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고 자신의 SNS 프로필과 사진, 이름이 함께 표시되기 때문에 내용의 신뢰도와 품질이 높아집니다. 또한 그만큼 악성 댓글의 비중도 줄어들게 되지요.

문제를 풀기 위한, '창업'이라는 행동

시지온의 김미균 대표는 대학교 재학중 당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악성 댓글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이 대해 고민하면서 창업의 길에 오르게 됐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당시 악플로 여러 연예인의 자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어요. 그때가 본격적으로 뉴스를 온라인으로 보기 시작한 시기였거든요. 사람들이 9시 뉴스를 더이상 기다리지 않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보고 그에 대해 소통하는 문화가 시작된 거죠. 그 과정에서 악플 문제가 불거졌어요. 저는 이 문제가 무척 심각하다고 받아들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관련 논문도 다 찾아 읽으면서 노력했지만 학생 신분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죠. 마음먹는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고 휴학까지 감행한 김미균 대표는 지금의 공동 창업자인 김범진 대표와 함께 아이디어를

모으고 발전시키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졌습니다. 악성 댓글을 줄여보자는 캠페인도 기획·진행했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도구 하나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위젯 형태의 댓글 시스템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계 말라리아의 날이라는 행사를 주최하는 한 NGO가 저희 프로그램을 한번 써보고 싶다는 연락을 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돈을 받을 생각도 못했고 의미 있는 일이라 무료로 제공했죠. 그런데 그곳에서 쓴 것을 보고 다른 NGO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홈페이지에도 쓰고 싶다고요. 저희는 처음에 무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계속 무료로 제공하려 했는데, 굿네이버스에서 예산이 700만 원밖에 없는데 괜찮냐 하시는 거예요. 그때 700만 원이면 저희에게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두근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그 예산으로 프로젝트를 개발·진행했어요. 그것이 좋은 사례가 되어주었고, 이후 자신감이 붙었죠. '문제를 해결해주고 돈을 받는다.'는 당연한 개념을 그때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전에는 '착한 일을 한다고 돈을 받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사회적 관계 안에 놓인 댓글 창, 악플이 사라지는 마법

시지온의 라이브리는 현재 거의 모든 언론사의 댓글 창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 하단의 댓글 쓰는 영역이 모두 라이브리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댓글을 달기 위해 각 언론사나 포털에 해야 했다면 지금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네이버 등 자신의 편한 계정으로



The Scene of Cizion

악성 댓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대학생이었던 김미균 대표에게 빛나는 영감을 준 순간은 오랜 휴학 후 학교로 돌아가 들은 한 강의에 있었습니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관련 수업 중, 온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네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법, 시장, 규범, 구조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나온 방법론이었는데요. 그중 김미균 대표는 ‘구조’의 방법론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의 쓰레기통에 센서를 달아 놓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버릴 때의 소리가 재미있어서 쓰레기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넛지(Nudge)’같은 개념이었는데요. 여기에 힌트를 얻어 온라인에서 악성 댓글을 줄일 수 있는 도구를 만들면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을 할 줄 알아야 했죠. 재미있는 점은 김미균 대표가 어릴 때 피아노나 태권도 대신 코딩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공동 창업자인 김범진 대표 역시 컴퓨터공학을 잠깐 전공했기에, 머리를 맞대고 스크립트를 짜서 라이브리의 기본 형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 우연과 필연이 기막히게 딱 떨어지게 만난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밑에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강물의 깊은 궤적이, 오늘의 시지온을 그려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1



3



2

- 1 우리나라 언론 거의 대부분이 시지온의 '라이브리'를 사용하고 있다.
- 2 시지온 김미균 대표.
- 3 소셜 댓글 기능이라 불리기도 하는 라이브리의 댓글창. 회원가입 없이 소셜 네트워크와 연결되며,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지온의 자체 선별 프로그램으로 악플 감소 효과가 크다.

댓글을 쓸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소통을 이끕니다. 이런 기능을 소셜 댓글 기능이라 하는데요. 또한 작성된 댓글은 사용자의 소셜 네트워크에도 공유되기 때문에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의 타인이 함께 댓글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댓글을 쓸 때 조금 더 신중함이 요구되고, 이는 악플의 가능성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여기에 댓글에 좋아요, 싫어요를 표시할 수 있는 기능을 더해 악성 댓글을 쉽게 걸러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언론사의 댓글창 100% 가깝게 저희가 구축한 라이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댓글은 저희 회사 서버에 모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악성 댓글을 선별합니다. 요즘은 기술이 놀랍게 성장해서 대부분 AI가 그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는 기계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을 장애인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면서 판별하게 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챗GPT를 응용하면서, 악성 댓글 판별률이 99.5%까지 오르더라고요. 엄청나게 똑똑해진 거죠. 기술의 발전이 좋긴 하지만 회사 운영상 장애인분들을 더이상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악플에도 패턴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시지온은 이 패턴을 읽어내는 알고리즘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우선 스팸(홍보성 메시지)도 악성 댓글의 일종으로 그 자체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거나,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용어가 계속 등장하면 악성 댓글로 판명되어 걸러냅니다. 하지만 무조건 욕설이 있다고 악성 댓글은 아닙니다. 글이 게시된 사이트나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전후 맥락도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섬세한 작업을 통해 악성 댓글 수는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처음 시지온을 시작했을 때 라이브리를 사용하는 언론사는 350개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650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체 고객사도 500여 곳에서 지금은 1024곳이 넘습니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거죠. 악플 역시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처음 서비스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정상적인 댓글이 거의 없었거든요. 댓글 창 자체가 마치 전쟁터처럼 각종

스팸과 욕설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에, 진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라이브리에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이 5% 미만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악플을 다는 다양한 마음

악성 댓글이 난무하는 시절에 비해 상대적으로 90% 이상 깨끗해진 댓글 문화. 그 많던 악플러들은 이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악플을 다는 행동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요?

“보통 우리가 악플러를 말하면 어딘가 꼬이고 공격적인 은둔자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떠올리죠. 하지만 정작 만나보면 아주 보통의, 사회생활도 잘 하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악성 댓글의 원인을 연구한 다양한 논문이 있는데요. 그중 인상적인 사례가 ‘사회가 안전했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예요. 사회가 예측하지 못하게 돌아갈 경우 개인은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지 않은 변화를 몰고 올 것 같은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조건 배척하는 거죠. 안전하고 싶은 욕구, 불안한 심리 때문이에요. 이렇게 악성 댓글에도 아주 넓은 스펙트럼이 있어요.”

김미균 대표는 악성 댓글을 처벌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를 하는 다양한 사회적 심리를 파악하고, 그들을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는 관점도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댓글의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상처를 입은 사람이 다시 또다른 악플을 생산하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죠.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시지온은 악성 댓글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회사입니다. 그 미션은 지금도 회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지금, 이제 시지온은 ‘건강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온라인도 저는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환경이라 생각해요. 이상기후로 빙하가 녹아 내리고 바다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고 동물들이 죽어가면, 우리는 그제야 ‘지구가 아프다’고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은 오프라인 이상으로 황폐하거든요. 게다가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환경 안에서 훨씬 많은 정신 에너지를 쓰고 있고요. 아이들은 메타버스에서 친구를 사귀고 그 안에서 세상을 배우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 정신 건강 역시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시지온은 지금 온라인의 아주 일부분, 댓글 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좀 더 확장된다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러 도구를 만들고 싶어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당찬 포부로 회사를 설립한 후 벌써 14년이 흘렀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표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는데요.

“젊은 나이에, 체력이 조금 더 있고 그래서 무모할 수 있을 때 많은 실패를 해봤다는 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경험이 없어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하기도 했죠. 직장 생활을 좀 해봤다면 일을 나누고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감정을 배제하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법을 배웠을 텐데,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대표이사여서 HR에 대한 감이 전혀 없었어요. 어디다든 자격지심도 있었구요. 지금이라도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직장생활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가능하다면 대기업 말고 한창 성장하고 있는 회사에서. 창업가에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계속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창업을 이뤄내는 사업가가 되고 싶거든요.”

사회적기업가는 계속해서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이루려는 기업을 만드는, 연쇄 창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김미균 대표. 벌써부터 그의 다음 창업이, 해결해낼 사회적 문제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Talk about SPC

시지온 김미균 대표

사회성과 인센티브는 시지온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초기에는 SPC 금액이 큰 편이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중에 일부를,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NGO가 필요로 했던 기능의 연구·개발에 쓸 수 있었죠. 전부터 필요했지만 내부 인력이 한두 달은 매달려야 할 만큼 큰 개발 건이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인센티브로 가능하게 됐죠. 받은 비용은 거의 다 인건비나 연구·개발에 사용된 것 같아요.

SPC 선배 기업으로서 후배 기업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로스쿨 1기도 쉽듯이, 저희 때는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모든 절차가 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웃음). 일단 저는 ‘사회적기업’에서 ‘사회적’은 수식어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즉 기업으로서 정체성은 잃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일 한다고 돈을 적게 벌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을 추구하는 것은 지속가능성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희망고문과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속 가능한 모델링을 짜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도 꼭 풀어야 해요. 집중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진심을 계속 간직하세요. 풀어야 할 사회적 문제를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해야 부침이 많은 현실을 이겨낼 수 있으니까요.

한눈에 보는 시지온 임팩트



기업명 시지온
대표자 김미균, 김범진
참여기수 2015년, SPC 1기
홈페이지 <http://corp.cizion.com>
주요사업 아시아 최초, 최대의 소셜 댓글 솔루션 '라이브리(LiveRe)'와 SNS콘텐츠 리뷰 큐레이팅 솔루션 '어트랙트 (Attractt)'를 개발·운영 하고 있습니다.

Problem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소셜 미션: 균형있는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온라인 문화 형성

Stakeholders

사회 편익 얻는 이해관계자

일반 대중(네티즌)
 (단순한 악성 댓글 관리를 넘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

Solution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



- '라이브리'를 통한 악성 댓글 방지 효과성 강화

사회서비스 성과

*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하여,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합니다.



고용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환경 성과

사회서비스 성과**Measurement****솔루션 측정과 비교 가격**

기존 솔루션인 제한적 본인 확인제와 비교하여 '라이브리' 도입 후 악성 댓글의 감소율

*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추정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Social Performance 산출된 사회성과 단위: 백만 원**사회서비스 성과****총 성과**

500

500

400

400

308

167

127

220

228

308

167

127

220

228

FY17

FY18

FY19

FY20

FY21

FY17

FY18

FY19

FY20

FY21

장애를 포용하는 차별 없는 고용, 테스트웍스

다름과 다양성이 우리의 경쟁력

장애인에게 직업은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에서 차별을 받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생산성이 낮고 직장에 적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회적 편견과 정보 부족 등이 원인이 되는데요. 테스트웍스는 이러한 편견과 한계에 맞서 사회취약계층의 고유한 능력을 발굴, 고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자 AI 전문 기업입니다.



The Scene of TestWorks

테스트웍스가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시기의 일입니다. 당시 윤석원 대표는 자폐 장애인 세 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해 소프트웨어 테스터로 키워내는 프로젝트를 시도했는데요. 자폐 장애는 사물이나 특정 대상에 대해 관심이 극단적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달리 보면 ‘사물과 분석 능력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으며, 윤석원 대표 역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교육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니다.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죠. 강의중 교육생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마음대로 화장실에 가는 등 수업에 집중을 하지 않으니 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교육을 계속 이어 나갔습니다. 20분 수업, 10분 휴식과 같은 방식도 만들고 대학생 튜터를 붙여 1:1로 별도 강의를 진행하기도 했죠. 중간중간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게임도 하는 등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하며 200시간의 교육을 완성했습니다. 이후 세 명 모두 국제 자격증 시험에 임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셋 모두 엄청난 고득점으로 시험에 붙었기 때문이죠. 쉽지 않은 과정을 겪으면서 세 명 중 한 명만 붙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 모두 교육에 집중하고 있었고 모두의 예상보다 더 큰 잠재력과 가능성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석원 대표는 그때의 기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 그래도 가야하는 - 길에서, 기대치 않은 결실을 거두었을 때의 그 충만감. 이것만은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매일매일 생각합니다.

2015년 설립된 테스트웍스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AI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품질 검사까지 모든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 출신, 나이, 장애 등에 구애 받지 않는 고용으로 사회취약층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사회적기업으로도 유명합니다. 2022년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한 ‘아기유니콘 200’ 선정, 2023년 대한민국 체인지메이커 수상 등으로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모두 이뤄낸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를 만나 그 성과 뒤에 깃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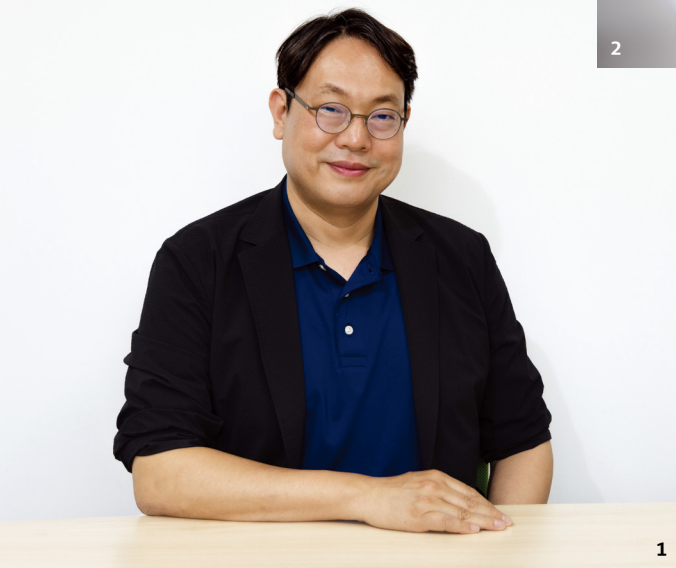
사회취약층이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자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는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글로벌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전문가로 활약하다 창업을 결심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접고 미래가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뛰어든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느 날부터 일의 의미와 가치가 많이 결핍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원 승진 같은, 회사 안에서 바라보는 성공이 와닿지 않더군요. 평소에 갖고 있던 가치를 실현하고 마음을 뜨겁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미



2



1



3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탈북 청년의 고용을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잠깐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경험에서 리더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지향점과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서 쌓은 전문성을 합하면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테스트웍스를 시작했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험난한 과정

테스트웍스는 창업부터 사회취약계층 고용이라는 미션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이익 추구를 함께 이루기는 무척 어려운 일인데요. 그래서 사업 초창기엔 시행착오도 많았습니다. 장애인 직원들이 작업한 데이터 가공 결과를 검수도 하지 않고 그대로 고객사에게 전달하는 바람에 계약 중도 해지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폐인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 진정성만 강조하여 생겨난 아찔한 에피소드였는데요. 그 사건은 품질관리 프로세스를 확실하게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밤새 토론하며 데이터를 서로 교차 검증하고 리뷰어를 따로 두어 고객과 소통하는 체계를

만들었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자 고객사의 불만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창업 초기 2년 정도는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면서 그 두 개의 가치가 상충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장애인이나 경력보유여성을 고용하면서 그들의 장점에 주목하고, 일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했습니다. 경험이 쌓이면서 그분들의 업무 생산성이 어떤 면에서 오히려 비장애인보다 더 나은 부분을 발견했고, 그것을 생산성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죠. 예를 들어 데이터 가공 같은 경우 굉장히 섬세한 작업이면서 반복적인 업무거든요. 그런 일의 특성이 자폐 장애인에게 잘 맞았고요. 청각장애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전(시각)에 무척 예민하고 집중력이 높아서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일을 수행하게 했습니다. 또한 그분들을 관리하는 PM 역할을 소통 능력과 이해심이 높은 경력보유여성에게 맡겨 일종의 드림팀을 만들었죠. 사실 우리의 미션이 고객에게 ‘감성팔이’식으로 보여질까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 고용 기업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편이예요. 순수하게 기술과 실력으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1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2,3 테스트웍스는 데이터 수집, 데이터 라벨링, 품질 검수, 데이터 전문 인력 서비스까지 인공지능 데이터 구축의 전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다.

4,5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용을 펼치는 테스트웍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가 곧 버릴 수 있는 동력

윤석원 대표는 창업 전까지 한번도 ‘을’의 입장이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갑’이었던 것이죠. 사업 초기, 한 경영 컨설턴트는 그에게 ‘이런 경우가 사업에 실패하기 딱 좋은 케이스’라고까지 했는데요. 대기업이 모든 시스템과 전문적인 역량을 지닌 동료들이 갖춰진 상태였다면, 창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냥 뼈를 갈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뼈를 갈았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결국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자폐 장애인들과 함께 일하면서 이 회사가 단순히 일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월급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속한 가정이 힘겨운 돌봄의 의무에서 벗어나고, 본인은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 자아를 실현하게 되고, 나아가 노후까지 설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우리의 비전, 그 사회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벌써 도망갔지 굳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계속 일하게 하려면 회사 차원에서 많은 변화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자폐인의 고용부터 업무

Talk about SPC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사회성과인센티브는 테스트웍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일 좋았던 것은, 우리가 창출한 사회적성과를 인센티브로 주시잖아요. 그걸로 R&D에 많이 활용했습니다. 테스트웍스는 처음에 직원들을 고용하는 모델로 가다가 이제 플랫폼이나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기반 기업으로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때 SPC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 기반으로 회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저희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67% 정도고, 지금은 저희가 인공지능 데이터 부분에서는 거의 탑 티어 회사가 됐거든요. 기술적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과 솔루션을 만드는 R&D에 지대한 도움을 받았던 거죠. 고맙습니다.

SPC 참여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한 행사에서 최태원 회장이 하신 말씀이 동기 부여도 되고 큰 위로가 됐어요. SPC 기업이 진짜 잘 돼서 돈을 잘 벌어야 생태계가 커지고 후배 기업들이 자꾸 생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시 심적으로 어려운 시기였거든요. 치유 받는 느낌도 들고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SK 같은 대기업이 우리 회사를 실제로 케어하고 진짜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럼 이런 사례를 만드는 게 우리에게 무척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고, 그때 많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후배 SPC 기업에게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본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성과를 가능한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어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성과 금액을 부풀리자는 의미는 아니고요. 실제로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성과를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기에는 상상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한 사회적성과를 어필하는 것도 좋지만 동시에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 사회적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따로 놓지 않게,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가능해지면 회사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자연히 사회적성과도 커지게 되니까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보세요.



테스트웍스의
포용적 고용은
장애인의 자립을
도우며 스스로
삶을 계획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한다.

적응을 돕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스스로 회사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자기관리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여기에는 출근 시간부터 옷차림과 청결 상태, 이메일 확인 등 직장 내 기본적 규범과 예절, 업무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이 들어갔습니다. 자폐 장애인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그들의 역량은 놀랍도록 성장했습니다. 한때 중도해지를 요구하기도 했던 고객사는 여전히 좋은 파트너로 협업하고 있습니다.

“종종 자폐 직원분들의 부모님이 제게 문자나 편지를 보내세요. 아들이 월급을 타서 자기한테 용돈을 줬다고요. 업무를 같이 하는 우리 PM들이 가르쳐줘서 한 거겠지만 자폐인 특성상 그런 사회적인 교류는 기대하기 힘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무 감동스러운 거죠. ‘우리 아이가 정말 사회인이 된 것 같아요’ 좋아하십니다. 실제로 테스트를 하면 직장생활 전후로 지능, 인지, 사고, 정서 등 모든 영역에서 성장했다고 나옵니다. 특히 사회성이 믿기지 않을 만큼 좋아졌다고요. 의사 선생님도 이런 사례는 처음이라고 놀랄 정도죠.”

다름과 함께 성장하는 회사

테스트웍스는 장애인 고용 창출이라는 사회적 가치뿐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IT기업으로서 큰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데이터 및 모델 간 데이터 및 모델 구축을 의뢰하는 고객사와 다양한 협업을 진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직접 개발하고 고도화 하여 인공지능 데이터 중심의 시장을 선도하는 성장과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등과 관련한 3D 인공지능 개발 및 3D 데이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에 부응하는 3D 데이터 수집 및 가공 자동화 기술을 빠르게 보유하여 더욱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 진출을 목표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2021년 글로벌 진출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창업진흥원(KISED)의 스웨덴 스톡홀름 KSC(K-Startup Center)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소수 기업들과 글로벌 비즈니스의 씨앗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2022년은 KOICA IBS 사업을 통해 베트남에 현지 법인인과 데이터 교육 및 가공 센터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실리콘밸리의 KIC(Korea Innovation Center) Express Soaring 2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위한 소통을 시작했습니다.

“존경받는 임팩트 유니콘이 되는 것.”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의 대답입니다. 사회취약층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열어주고, 늘 그들과 함께 상생하는 세상을 꿈꾸는 테스트웍스가 조만간 꼭 그 바람을 이루길 기대합니다.

Interview with Members

테스트웍스 팀장
배지수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테스트웍스에서 임팩트 플랫폼팀 팀장을 맡고 있는 배지수라고 합니다. 임팩트 플랫폼팀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테스트웍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알리는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공익 데이터 관련 프로젝트도 기획·운영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웍스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소설기업에 원래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언젠가는 이런 일을 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원래 이쪽 분야에서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저는 테스트웍스가 세 번째 회사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평범하게 전공 관련된 마케팅 분야에서 계속 일했습니다. 그때 추구하던 목표는 늘 항상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고,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것이었죠.

이직을 한 이유도 IT 직종이 유망해 보여서였지 사회적기업이라는 이유는 아니었는데요. 최종 면접 자리에서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해외 봉사를 갔던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 그 선택에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취업 준비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무슨 봉사냐고요. 시간낭비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겠냐, 그런 말들을 들었죠. 그런데 대표님이 그때의 경험을 들으시고 '너무 다양한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 그게 이 회사에서 일하는 데 큰 자산이 될 것 같다. 너무 멋진 삶을 살았다.' 말

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도 있구나, 생각을 했었죠.

테스트웍스에서 일하면서 어떤 변화를 경험했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삶을 추구하는 방식이, 보람이 인간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자아실현은 다른 데서 하는 거고 직업은 직업일 뿐이고 돈은 돈일 뿐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고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테스트웍스에서 일하면서 좋은 일을 하고 가치를 좇는 것도 나중에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본적인 가치관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기 위해 다분히 노력하는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너무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우리 사회는 행복해지기 위해 무척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돈을 잘 벌어야 하고 결혼을 잘해야 하고 자아실현을 해야 하고... 단계 단계를 넘어야 행복을 겨우 느낄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불행은 아무렇지도 않게 어느 날 불쑥 찾아오고요. 그것도 여러 개가 동시에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지 않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날씨가 좋아서, 10분 일찍 퇴근해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으면 해요.

한눈에 보는 테스트웍스 임팩트



기업명	테스트웍스
대표자	윤석원
참여기수	2017년, SPC 3기
홈페이지	www.testworks.co.kr
주요사업	사회 혁신을 원하는 사회적기업이자 IT 전문 기업으로서 경력보유여성,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취업 취약계층에게 'Second chance'를 부여하고자 실현과 직무 전문성을 통한 사회가치를 실현합니다.

Problem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

소셜 미션: Growing with Employees, Customers and Society

Stakeholders

사회 편익 얻는 이해관계자

장애인

(최신 기술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IT 분야에서 장애인과 같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

Solution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



-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수집/가공 취업 교육 무료 제공 성과
- 고용 성과(직접 고용/고용을 통한 돌봄 성과)

사회서비스 성과



고용 성과

- 추가적인 거래 기회를 통한 취약 생산자 수익 증진
(‘데이터라벨러’라는 신규 직무 개발로 경력보유여성 및 장애인 대상 유연한 일거리 창출)

* 시장에서의 솔루션과 비교하여,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회성과만을 인정합니다.



고용 성과



사회생태계 성과



환경 성과



사회서비스 성과

Measurement

솔루션 측정과 비교 가격



사회서비스 성과

- 수혜자 관점에서 취업을 목표로 컴퓨터 분야의 교육을 수강할 때 지출 예상되는 시간당 비용
- 경력보유여성 및 장애인의 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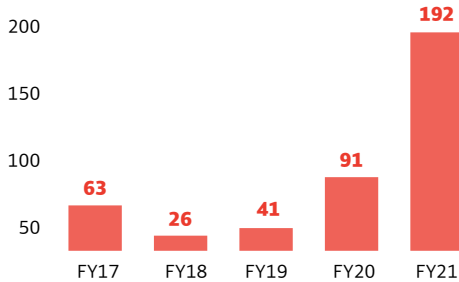
고용 성과

- 프리랜서 근로자(경력보유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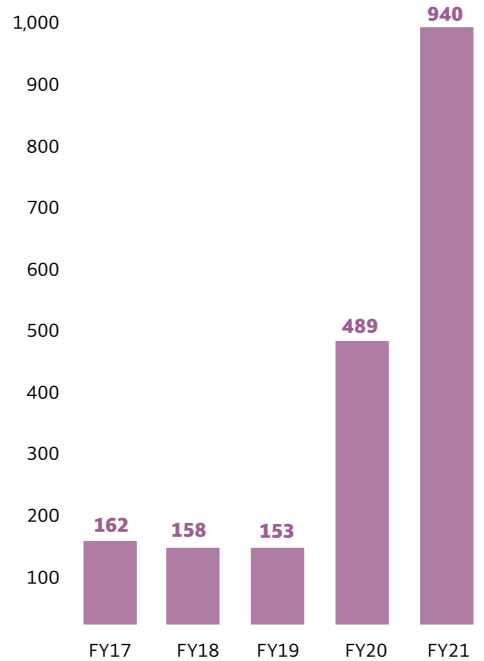
* 현실적인 시장 가격을 추정하여 화폐 가치로 환산합니다.

Social Performance 산출된 사회성과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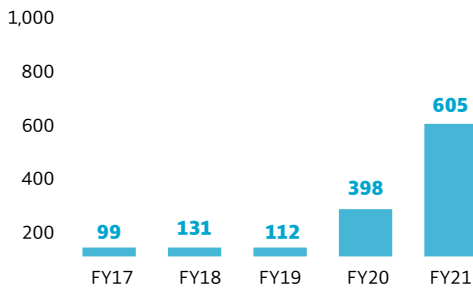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성과



총 성과



고용 성과



숫자로 보는 사성인

사회성과인센티브는 기업이 창출한 성과 중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결과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한 기준값과 숫자는 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사성인 이야기'의 네 주인공(투아트, 만드로, 시지온, 테스트웍스)이 쌓아 올린 성과를 숫자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2년 선정된 8기 투아트의 경우 측정 및 인센티브 결과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에 대해 기업의 기대치로 답했습니다.

투아트 조수원 대표 · 만드로 이상호 대표
시지온 김미균 대표 · 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Q 앞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수치적으로 표현주세요.



투아트 30만 다운로드

설리번플러스의 30만 다운로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 출시를 예정하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앱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만드로

14만 명을 위해,
1/10미만의 가격 형성



만드로는 2023년 현재 복지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손 절단장애인을 위한 저비용의 전자 의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가격은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사이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10분의 1 미만의 가격으로 형성하는 것이 우리 목표입니다. 국내 14만 명 상지 절단장애인 중, 84.2%가 부분손 절단장애에 해당하며, 이 분들을 위한 제품을 2023년 연내에 완성하여 출시할 예정입니다.

시지온

악성 댓글
99.5% 삭제



시지온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악성 댓글의 '비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댓글을 증가시키고, 악성 댓글의 수는 줄여서 비중을 맞추는 건데요. 악성 댓글과 스팸을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계속 고도화 해왔고, 사회성과 측정도 그에 맞춰 설계돼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리가 고도화시킨 시가 악성 댓글을 99.5% 이상 정확하게 판단해서 삭제하게 되는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웍스 매출 목표 1,238% 성장

2023년 기준으로 테스트웍스의 투자 목표는 60억 원이며 총 매출 목표는 161억 원입니다. 이는 SPC 참여 이전인 2018년 약 13억 원에 비하여 1,238% 성장한 수치입니다. 사회성과 또한 취약계층 고용 기회 확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소셜 임팩트 창출을 위하여 소셜 임팩트 플랫폼인 Aiworks의 다양한 봉사 활동과 프로젝트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임팩트 워커' 15,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워커란? 테스트웍스와 Aiworks를 통하여 공익데이터 수집 프로젝트 및 봉사 프로젝트 등에 참여하여 소셜 임팩트를 실천한 사람들을 지칭.

Q SPC 참여 이후, 경제성과 혹은 사회성과가 얼마나 향상되었나요?



투아트 100% 성장

SPC 참여를 통해 매출액의 100%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아트는 그간의 노력으로 폭발적인 성장의 초입에 있으며, SPC는 투아트의 그러한 성장에 촉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실제 SPC 참여 이후, 시각장애인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1명이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만드로

2.9배 성장



2018-2019년 사이의 만드로는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면 서비스의 제약이 생기면서 사업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당시 사회성과인센티브가 회사의 동력을 잃지 않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그 결과 2018년의 매출액(2억4백만 원) 대비 약 2.9배 성장한 매출액(5억9천만 원)을 2022년에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시지온

고객사 2배 성장

언론사 수 390 → 650

기업 수 500 → 1,020



시지온은 소셜 댓글 서비스 '라이브리'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데요. SPC 참여 첫 해만 해도 '라이브리'를 사용하는 언론사 수는 390여 곳, 기업은 약 500여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현재 기준으로는 사용 언론사의 수가 650여 곳, 기업은 약 1,020여 곳 정도 되니까 SPC 참여 이후 회사의 지표가 2배 성장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테스트웍스 임직원 수 7.4배

취약계층 임직원 수 3.7배 증가, 매출액 8.15배 성장

SPC 참여 이전인 2017, 2018년과 2022년을 비교해보았을 때, 임직원 수는 2017년 17명에서 2022년 127명으로 7.4배 성장하였으며 취약계층 임직원 수 또한 3.7배 증가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청각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고령자 등의 고용과 직무 교육을 위하여 테스트웍스는 지속적으로 다양한 직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또한 2017년 약 13억 원에서 2022년 테스트웍스와 데이터큐(자회사, 장애인표준사업장) 합산 매출 약 106억 원으로 8.15배 성장하였습니다. 테스트웍스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 라벨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생들은 2019년 총 교육생 144명(장애인, 경력보유여성) / 2020년 290명(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결혼이민여성 등) / 2021년 527명(장애인, 경력보유여성, 고령자) / 2022년 809명(경력보유여성, 시니어, 장애인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Q 측정과 인센티브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도움이, 얼마나 되었나요?



투아트

SPC 참여는 그간의 우리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증으로 느껴져서, 투아트 임직원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증빙하고, 이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앞으로도 투아트 기업 소개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를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만드로

측정 결과로 받은 인센티브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의 개선을 해야 할 때, 특히 코로나19로 어렵던 시기를 버티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회사가 현재 상태로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사회성과를 내고자 하는 회사들에 도움이 되는 사회성과인센티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지온

라이브리가 속해 있는 시장은 매우 작습니다. 하지만 시장과 별개로 문제는 발생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해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수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명을 지키고 조직의 또 다른 이익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준 SPC의 인센티브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테스트웍스

테스트웍스는 사회성과인센티브를 R&D 부문 강화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양한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테스트웍스의 플랫폼인 'Blackolive'와 'Aiworks'의 고도화 및 AI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테스트웍스가 더 성장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과정을 통하여 자사가 창출하고 있는 다양한 가치가 그 전에는 다소 모호했던 부분을 명확히 가시화 할 수 있었던 점이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SPC 참여 기업의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 지원 현장

2023년 2월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중해 연안에서 규모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부상당했으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습니다. 주요 도로와 교량이 파괴되고 전력과 수도 공급이 중단되면서 식량, 의약품, 구호 물자 부족을 초래했습니다. 이에 튀르키예와 시리아 정부는 지진 피해 지역에 긴급 구조 및 구호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유럽 연합, 유엔 등 세계 곳곳에서 튀르키예를 향한 지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SPC 참여 기업 역시 지진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튀르키예 국민을 위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도 이러한 선한 움직임에 적극 동참하여 현물 기부 및 다양한 지원 방법을 모색하며, SPC 참여 기업의 피해 복구 지원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거대한 재난의 한복판에서 발견한, 무심한 일상의 소중함

특별 기고

공감만세(SPC 1기), 노진호 이사



사회적기업 공감만세는 ‘공정함에 감동한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뜻의 그 이름처럼, 보다 공정한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일을 찾고 해결한다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지방 재정 자립 등 지역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며 공정관광과 고향사랑기부제가 주요한 수단일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일본, 필리핀, 태국 등지에서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만세는 출연자로서 2020년부터 ‘피스윈즈 코리아(peace winds Korea)’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피스윈즈는 1996년 일본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 33개 국가 및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협력 NGO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갈등과 반목을 넘어, 평화와 번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2020년 12월, 피스윈즈 코리아가 설립되었습니다. 인류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관리하고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를 달성해가는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감만세와 피스윈즈 코리아, 두 조직의 공통점을 뽑자면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긴급 구호 현장이든, 국제개발 협력 현장이든,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든 피스윈즈코리아, 공감만세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합니다. 나아가 지금 국내의 지역에서 하는 실험들을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적용하여, 평화공동체를 구축하여 미래 세대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피스윈즈 코리아, 튀르키예 지진에 즉각적인 구호 결정

그동안 피스윈즈는 긴급 구호/국제개발 협력/한반도 평화/청년 펠로우/공정관광 포럼 이상 5가지 분야에서 여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 팔라우 병원선 프로젝트 ●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 필리핀 바공실랑안 어린이 공부방 지원 ● 한반도평화학교 ● 청년 평화경제 오픈랩 ● 대한민국 공정관광 대상 등).

이번 튀르키예 재난 복구 지원은 지진이 발생하자마자 피스윈즈 그룹 차원에서 긴급 구조 및 구호가 결정되었습니다. 몰도바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고 있던 피스윈즈 긴급구호팀이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되었습니다. 모든 NGO는 튀르키예 정부 허가 없이는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할 피난소 배정을 받고, 피해 현황이나 필요한 지원 등을 확인한 후에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식량 패키지나 담요 등과 같은 보온 물품, 의약품 등 기초 물자가 공급되었고 지진 발생 한두 달 후부터는 피난소마다 특수 수요에 따라 지원 활동이 진행했습니다. 피스윈즈코리아는 주로 지원이 닿지 않는 외곽 지역에 기초 물자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 도심 피난소에는 아이들 교육 물품, 유아용 숙옷 등 피난소 요청에 따른 지원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체감한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

NGO가 현장에 도착해서 즉시 구조 활동, 물자 배급, 의료 지원 등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현장에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NGO 구호 활동은 해당국 협조를 받아야만 합법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국내 NGO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 통제가 이뤄지는 지역 안에서 제한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스윈즈 긴급구호팀은 평소 현지 네트워크를 유지·관리하는데 투자했던 덕에 막힘 없는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의료팀은 세계보건기구(WHO) 응급의료팀(Emergency Medical Teams) 자격을 획득한 덕에 현장에서 '진료 등 의료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조팀은 유엔(UN) 인사락(INSARAG) 멤버인 현지 긴급 구조 단체 'GEA'와는 오랜 세월 협업 체계를 구성하고 정기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빠르게 활동하는 것만큼 적재적소에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하우와 철저한 준비가 없다면 아수라장인 현장에서 마구잡이로 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평소에 인력과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합니다. 현장에서 즉시 구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국제적인 지위를 획득하고, 전문성을 지닌 현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이에 공감하는 후원자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난을 차분하고 담담히 견디는 튀르키예 사람들

피스윈즈가 운영하던 진료소는 원래 타니슈마 마을에서 진료소로 운영하던 공간이었습니다. 타니슈마는 약 5천 명이 살아가는 마을로, 외곽 지역에서 있어서 정부 지원이 잘 닿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마을 의료 인력이 정부 지침으로 다른 지역으로 파견되어 진료소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피스윈즈 의료팀이 진료소 운영을 맡았었는데요. 현재는 의료 인력이 복귀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전염병'입니다. '옴'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전염이 쉽게 되는 질병입니다.



깨끗한 물, 목욕 시설, 세탁 시설 등 위생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피스윈즈코리아에서 세탁기를 우선 지원했고, 목욕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복구 활동을 진행하는 동안 만났던, 대지진을 담당하고 차분하게 견뎌내는 튀르키예 사람들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습하고 따듯한 공기를 내뿜는 세탁소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상을 찍은 사진이 거의 없었는데, 견다가 사진으로 한 장 남겼습니다. 수다스런 아주머니 두 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집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는 모습이 정겨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도시보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외곽 지역 마을이 재난을 견디고 현실을 극복하기엔 나은 환경이란 생각이 듭니다. 국가 재난 상황이 와도, 무심히 일상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도시민들을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보다 소중한 건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인상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하루빨리 이들의 일상을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을 먹어봅니다.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튀르키예 지진 현장

아무리 큰 재난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으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사무국은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달됐습니다.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성금을 모으고자 천안 비전교회 초등부 아이들이 바자회를 열고, 바자회를 통해 얻은 성금을 기부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인의 소중한 물건도 내놓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꺼이 마음을 내주는 아이들이 고맙기도 하고 대견스럽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정기 후원으로 피스윈즈 코리아의 현장 활동을 지속적으로 응원해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이런 마음들이 모여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물자를 보내주고 싶다는 개인과 단체가 여럿 있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물자와 맞지 않는 것도 많았습니다. 처치가 곤란한 물자들도 많아서 물자보다는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기업은 ‘등불’ 같은 존재가 아닐까 합니다.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언제나 빛을 밝혀주는 존재죠.

단순히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체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의 어둠을 밝혀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조명

SPC 2기 참여 기업이자 조명 브랜드인 (주)루미르는 6100만 원 상당의 '루미르H'를 기부하며 튀르키예 지진 피해 복구에 동참하였습니다. 이번에 전달되는 '루미르H'는 실내 조명, 보조 배터리, 라디오 등의 기능을 가진 다기능 제품으로 전력 공급이 끊긴 현지에서는 태양광으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Interview with 박제환 대표

루미르는 어떤 기업인가요? 전력이 닿지 않는 지역에서 쓸 수 있도록 개발한 저렴한 친환경 램프를 보급하고 국내 및 선진국에는 디자인 조명을 개발 및 생산하여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면서 소셜임팩트를 지속가능하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SPC 참여 기업으로서 SPC 경험은 어땠었나요?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하고 집중이 필요한 지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얼마만큼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 구성 모두에게 동기 부여가 되고 향후 임팩트 창출 목표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통해 빛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여 보급한 이후 현지 사용자의 피드백을 통해 연료 변화에 따른 큰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과인센티브를 통해 개선된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었고, 이어서 코이카와 현지 사업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저희 사업에 있어 SPC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 튀르키예 재난 복구 지원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뉴스를 통해서 튀르키예 지진 소식을 접했고, 이로 인해 많은 구호 물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대사관에서 공정한 우선 구호 품목을 확인했을 때 손전

등, 휴대용 발전기, 보조 배터리 등이 있었고, 그동안 여러 지원으로 성장한 만큼 자사 제품이 피해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현물 기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SK에서 사회성과를 인정받아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 있었기에, 지금까지 지원받은 인센티브를 환원해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확장하는데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루미르H는 어떤 상품인지요? 루미르H는 다수의 실내 조명, 보조 배터리, 라디오 기능 등의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외부 전력 없이도 태양광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지진 피해 지역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루미르의 포부와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이 있다면? 계속해서 열의 전기 변환 효율을 높이고 상품성을 높여 2300만 명의 비전력 인구가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유의미한 임팩트를 확장해나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비슷한 환경 조건과 수요가 있는 필리핀 등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로 시장을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사회적기업의 힘, 그리고 '선한 영향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느 분야에 영향을 미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으로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SPC 참여 기업의 튀르키예 기부 협력 상황

공감만세, 루미르 이외에도 여러 SPC 참여 기업들이 현물 및 현금 기부 방식으로 튀르키예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작지만 그 소중한 마음들이 차곡차곡 모여, 머나먼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물 기부 협력 기업

기업	협력내용
되살림사회적협동조합(7기, 이경선 대표)	에코백과 텀블러
다래월드(4기, 이정옥 대표)	바디워시
오티스타(2기, 이완기 대표)	타포린 백
아트패드(4기, 신경환 대표)	여성용 가방
루츠랩(7기, 김명원 대표)	클렌징바
티을(6기, 윤송이 대표)	여성용 제품
돌봄드림(8기, 김지훈 대표)	조끼
트레드앤그루브(8기, 이온 대표)	신발
LAR(8기, 계효석 대표)	신발

현금 기부 협력 기업

기업	기부금 전달 업체
정산업(8기, 정종훈 대표)	(재)피스윈즈코리아
성남만남돌봄센터(8기, 김영애 대표)	(재)피스윈즈코리아
영농조합법인 에듀팜(6기, 박인영 대표)	(재)피스윈즈코리아
청소박사(4기, 김미정 대표)	(재)피스윈즈코리아
맛들식품(8기, 이정희 대표)	YMCA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참여하기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프로젝트 <https://peacewindkorea.org/turkeyearthquake>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904-202569 재단법인피스윈즈코리아

간편 후원 <https://url.kr/dsy3aj>

문의 02-2088-8044 / pwk@peacewindkorea.org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선순환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과학적 증거가 되다

최근 정책결정의 방식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증거기반 정책결정(evidence-based)인데요. 국민에게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통계와 계량적 분석 등 객관적 정보를 활용한 정책분석과 평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증거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평가를 내리고자 하는 경향이 커진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성과비례보상제도)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정책결정에 과학적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내 지자체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호 'SPC의 모든 것'에서는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되는 증거기반 정책결정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성과인센티브가 증거로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증거기반 정책결정의 개념 및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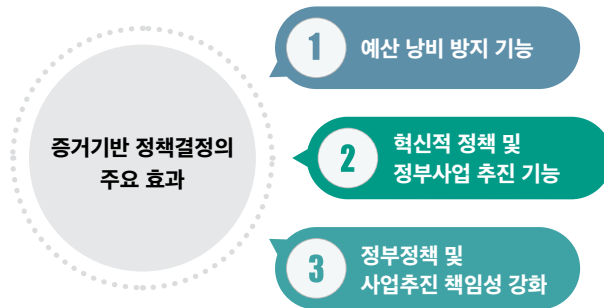
증거기반 정책결정 개념 & 배경

- 정책결정자의 의견기반(Opinion-based) 정책결정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결정을 의미
- 1997년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이 증거에 기반한 정책결정을 제안하고 이를 대중화했다.
- 미국은 오바마 정부를 중심으로 증거기반 정책결정이 확대되었다.



"통계는 국가 경영의 기반이다"

효과 및 증거 수집 방법



- 주요 정책증거 수집 방법

: **무작위통제실험(RCT)***이 가장 강력한 정책증거로 활용

*무작위통제실험(RCT)

정책이 적용되는 실험군과 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대조군을 무작위로 나누고 정책으로 인한 대조군 대비 실험군의 효과를 엄밀히 검증하는 실험 [무작위통제실험으로 국제개발정책을 실험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 연구진이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사례

- **미국 사례**

오바마 정부는 증거기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본격적인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예산관리처(OMB)**는 예산, 고용, 투자, 세금 등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다루고 이를 제시한다.

- **한국 사례**

우리나라는 **증거기반 정책입안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데이터기반행정부법이 2020년에 제정되었으며, 현재 시행 중이다.

데이터기반행정부법 제2조에서는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법인·단체 등으로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정책 수립 및 의사 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행정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분야 EBPM의 사례: 사회성과인센티브

기존의 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일률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이 더 많은 사회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동기부여 측면에 있어 제한적**

사회성과인센티브(Social Progress Credit, 이하 SPC)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차별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

EBPM은 공공정책결정에 있어서 **효과성이 검증된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비용 효과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시도

효과성이 검증된 SPC 사업의 데이터를 정책증거로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게 동기 부여하고 재정 효율적인 성과비례보상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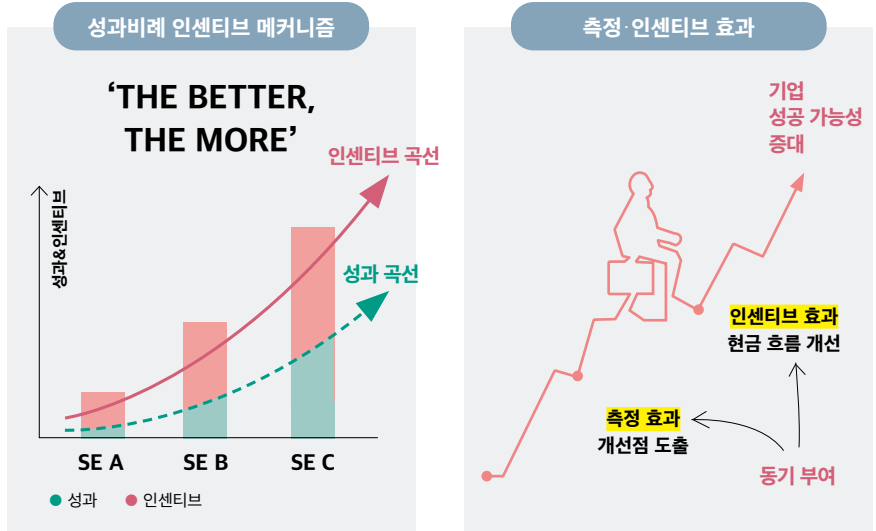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SPC는 사회적경제 분야 EBPM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Outcome-Based Funding 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제도

EBPM으로서의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회성과인센티브(SPC)

- 기업의 사회성과에 비례하여 주어지는 ‘성과비례 인센티브’,

‘The Better, The More’ 메커니즘을 통해 사회성과 창출을 동기부여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의 성과를 정책증거로 삼아 기업 사회성과 창출의 동기 부여 및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 가능

1 사회성과인센티브 효과성 검증 논문 게재
 (‘22)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두 가지 측면 측정 효과와 인센티브 효과의 효과성을 계량 검증한 논문으로 세계 최고 경영 학술지인 매니지먼트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정선문, 신재용 교수의
 Social Performance Incentives in
 Mission-Driven Firms, 2022

2 세계경제포럼, 사회성과인센티브가 독창적, 효과적 프로그램임을 재조명(‘23) 2013년,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최초 제안. 2023년, 10년 후 세계경제포럼에서 효과성 재조명.



최태원 SK 회장,
 2013년 1월 다보스포럼
 임팩트 투자 세션에서
 SPC 개념 설명



2023년 1월
 WEF OpEd 에서
 SPC 재조명

성과비례보상 제도 확산 추진 현황

성과비례보상 제도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약

추진
현황



춘천시 협약 완료
(CSES 원장, 2023.2.7)

화성시 협력 사업 진행 중
(2022~2024)



전남도 협약 완료
(SV위원장, 2023.3.22)

경남도 협약 완료
(CSES 원장, 2023.1.27)



제주도 협약 완료
(SV위원장, 2023.4.10)



그 외 지자체 (논의 중)

서울시

대구시

충북도

충남도

전주시

중기부

성과비례보상 협력 사업 협약 후 ‘협력 과정’

지자체와의 협약 후 지자체와 성과비례보상 방식 파일럿 사업을 진행하여 지자체 내에서 효과성 검증

→ 데이터로 지방의회를 설득하고 성과비례보상 관련 조례 제정 추진

협력 과정

1

협약 체결(SV위 or CSES - 지자체)

2

기존 지자체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내, 사회성과 측정·비례보상 파일럿 사업을 포함시켜 진행

- 기존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파일럿 대상 선정 → 측정 / 성과비례보상
 - 측정: 해당 지자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CSES 지원
 - 보상: (지자체는) 기존 사업비 지급 방식대로 일률 지원, (CSES는) 그 금액에 매칭하여 성과비례보상 지원

3

3년간 해당 파일럿 사업의 성과 측정 / 효과성 검증 → 지방의회 보고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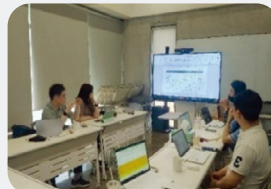
지자체가 “성과비례보상 방식”으로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조례 제정 (SK는 EXIT)

(예시) 경기도 화성시

(SK가 3년간 매년 4개 기업 선발(총 12개 기업), 총 3억 원 성과비례보상)



2020년 화성시 업무협약식



2020년 화성시 측정 교육



2022년 협력 사업 성과 보고회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생태계를 위한 사회성과인센티브 도입

지난 3월 전라남도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SV위원회와 도내 우수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성과인센티브와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행정적 도입은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더 큼니다. 이번 협약에 대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 with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SPC

Jeollanam-do

Q 전남도가 사회성과인센티브 협력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요?

SK그룹은 그동안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여러 영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 실현과 연계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에 대해 금전적 성과 보상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성공적 모델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가를 계기로, 우리 도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행정에 접목시키게 되었고요. 도내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Q 전남도를 대표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라남도에는 현재 2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이제는 이러한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기업의 내실을 다지면서 자생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우리 도의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인센티브와 같은 민간 영역의 우수한 시스템을 도입해서 사회적기업들이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선순환적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Q 전라남도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정량적으로 화폐화 하여 측정하는 것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도내 사회적기업이 만들어 내는 유·무형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적 화폐 단위로 산출하고, 그 실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가능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객관화된 지표를 정책적으로 활용해 간다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기존 보조금 중심의 일률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기업이 달성한 사회성과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재정 지원 이루어진다면 사회적기업이 착한 일을 더 많이 하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Q 전라남도 내 사회적기업들이 창출한 성과에 비례하여 전라남도와 사회적가치연구원에서 매칭하여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신지요?

많은 사회적기업이 다른 민간기업에 비해서 재무적 성장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측면이 있다 보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전남도와 사회적가치연구원이 민·관 협업을 통해서 제도화된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재무적 안정성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사회성과인센티브의 화폐화 측정, 비례보상제도를 도입한 후 어떠한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앞으로의 기대와 바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의 도입으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방식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전까지는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환경오염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공공주도 방식으로 해결했다면, 이제는 보다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혁신적인 인센티브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성과인센티브 2기

졸업한 선배 기업의 활력과 노하우

2015년 사회적기업이 사회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동시에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해인 2015년에는

44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그 다음해인 2016년에도 50개 기업이 사회성과인센티브(SPC)와 그 뜻을 함께하고자 2기 기업으로 참가하였습니다.

2기 기업은 2016년부터 측정과 보상을 통해 SPC와 함께 성장하며 값진 성과들을 만들어왔습니다.

2022년을 끝으로 2기 기업은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졸업하며 그동안 쌓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기업에게 전수해줄 수 있는 진정한 SPC 선배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VIT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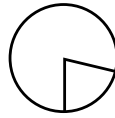
KNOW-HOW

SPC 2기 기업의 특징(202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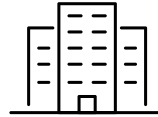
기업 업력

평균 **11.5년**
최소 7년
~최대 **20년**



기업 형태

주식회사
28개 72%



2016년 선정
~2022년 졸업

총 **45개** 기업



5년 2015~2020년 동안
2기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성과 총액

397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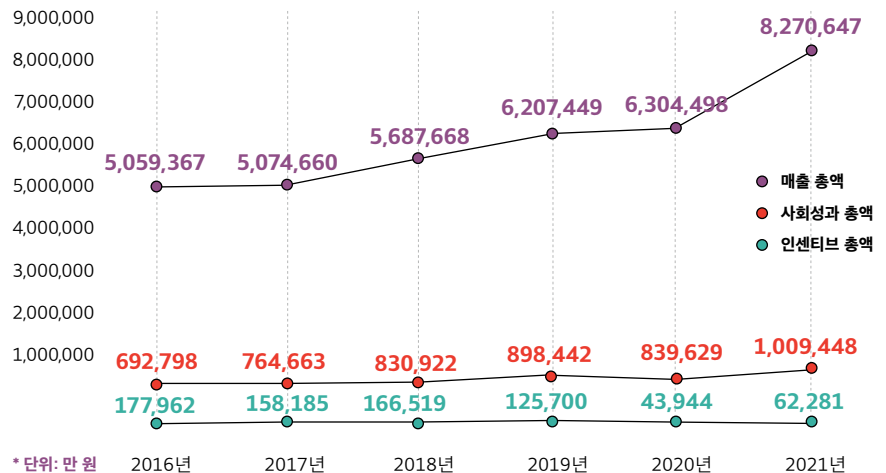


5년 2015~2020년 동안
2기 기업이 만들어낸
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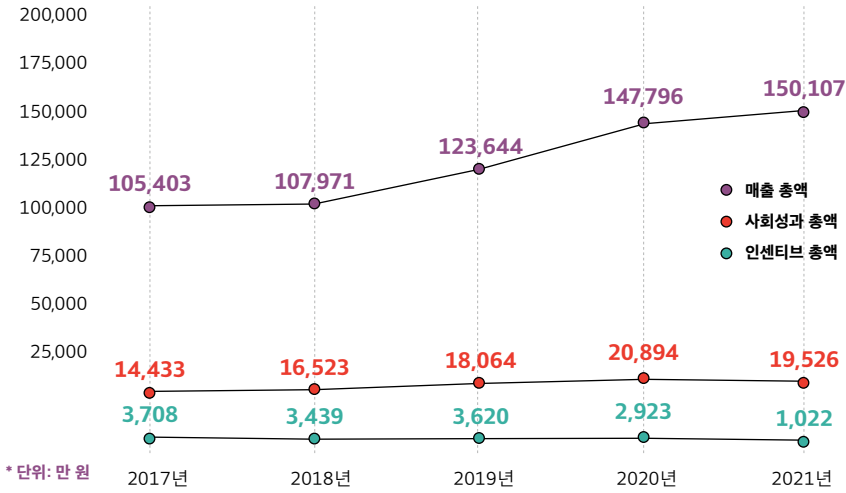
2,669억 원

2기 기업의 2016~2021년 매출, 사회성과, 인센티브 총액 추이

2016년~2021년 평균 매출과 사회성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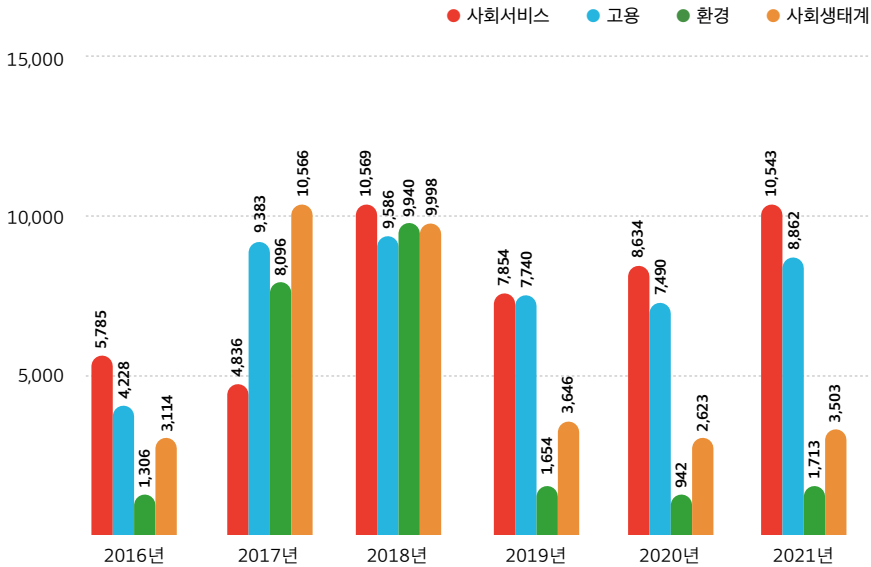
2기 기업 2016~2021년 매출, 사회성과, 인센티브 총액 추이



2기 기업 2016~2021년 매출, 사회성과, 인센티브 평균 추이

유형별 사회성과 평균값

창출하는 사회성과는 사회서비스 성과 > 고용 성과 > 사회생태계 성과 > 환경 성과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SPC 2기 참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성과의 유형 *성과 평균 단위: 만 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2기 참여 기업 리스트

회사명	기업 한 줄 설명	About Company	products/ services	사회성과 구분
(재) 아름다운커피	저개발국 생산자들이 자립하도록 돕고 윤리적 소비자들의 가치 있는 소비로 삶의 질을 향상	빈곤을 심화시키는 무역을 빈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아름다운커피는 2002년 한국에서 공정무역 운동을 처음으로 개척한 공익법인이자 사회적기업입니다.	커피 수입 공정무역교육 및 저개발국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네이처앤드피플	환경과 사람을 이롭게 하는 회사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해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디자인 종합회사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바리스타가 일하는 CAFÉ THE PEOPLE를 운영하며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 사용을 통해 환경과 인간을 생각하는 상품 제조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노나메기	행복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환경 조성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거에너지 빈곤층을 지원하는 노동자협동기업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에너지 효율화 집수리 사업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동구발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결핍 문제에 집중하여 교육서비스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로 크게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결과 사회성 부족 문제 해결 두 가지의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사회성교육프로그램 운영 천연 비누 제조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두꺼비하우스	도시재생과 사회주택공급 사회적 공간개발로 공간을 재생하고 공유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구체적 실천	도시재생과 사회주택공급 사회적 공간 개발을 소셜 미션으로 하는 기업으로 낮은 비용의 사회 주택을 공급하고 도시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간을 재생하고 공유합니다.	낮은 가격의 사회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 사업 운영	사회서비스
두바퀴희망 자전거협동조합	페자전거 및 자전거를 활용한 노숙인 자립 자활	버려지는 자전거로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기업으로 직원 90%는 서울역 노숙인을 비롯하여 노숙인 쉼터에서 자활중인 노숙인 등 대부분 노숙생활을 하였던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재활용 및 폐부품 업사이클링	고용 환경
명화극장	생애 가장 젊은 오늘을 즐기자.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에 세워진 경기도 유일 실버 영화관. 365일 추억의 영화를 2,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시니어의 문화 공간으로 지역문화 복지 수준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실버 영화관 및 시니어 문화 공간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목원스마트스쿨 사회적협동조합	방과후학교와 교육의 발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우수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 양성 및 보급을 통해 교육 평등 사회복지를 구 현하고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선 및 개발 우수 방과후학교 강사 인력 양성 및 보급	사회서비스 고용
배리어프리 영화위원회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영화를 즐기는 세상 만들기	장애와 상관없이 모두가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영화. 전문 영화인들로 구성되어 한국영화와 다양한 장르의 외화들을 배리어프리 버전으로 제작하여 배급 상영하는 단체입니다.	한국영화와 다양한 장르의 외화들을 배리어프리버전으로 제작하여 배급 상영	사회서비스
복지유니온	먹거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먹거리 보장	모두가 행복한 건강 한끼를 위해 먹거리 사각지대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여 인권 친화적인 먹거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고령화 친화식품 개발 및 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비타민엔젤스	당신이 건강해지는 만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비타민 하나를 팔면 비타민 하나를 기부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주원료 원산지를 100% 공개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기부자와 수혜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가격을 설정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비타민) 제조 및 판매	사회서비스
상상우리	중장년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혁신의 자원이 되도록 한다.	중장년의 소중한 자원이 사회에 기여될 수 있도록 인생 2막의 설계와 전직 취업 창업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인재관리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구합니다.	중장년 대상 창업교육 및 멘토링 사업	사회서비스

선산행복일터	농촌 장애인 일자리 창출	이불 세탁을 시작으로 작업복 및 단체세탁을 전문으로 하며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에게 다양한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시작한 기업세탁 전문업체입니다.	기업대상 세탁서비스 (사무가구 침구류 방진복)	사회서비스 고용
세진플러스	고용과 직무교육을 통해 장애인에게 자립가능한 삶을 유도	일자리 창출 직업 재활 교육으로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소설 미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기능성 의류 생산	고용
송지	아이와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천기저귀 천생리대 사용을 장려함으로 환경보존과 여성과 영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친환경세탁서비스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자활센터와 연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천기저귀 토탈서비스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사회생태계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농촌 지역복지 사업 전개	토종 우리 밀 종자를 현실 농업에 맞게 접목시켜 생산 판매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한 먹거리 체계를 만들어가는 기업입니다.	토종 우리 밀 종자를 현실 농업에 맞게 접목시켜 생산 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언니네텃밭 여성농민생산자 협동조합	얼굴있는 생산자와 마음을 알아주는 소비자의 먹을거리 공동체와 지역먹거리 체계 확립	언니네텃밭은 식량주권과 토종씨앗을 지키기 위한 여성 농민과 소비자들의 공동행동 공간입니다.	제철꾸러미 재배업 농산물 직거래 중개 및 온오프라인 매장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에코시티서울	자원순환사회 만들기& 일자리 창출	재활용 사업을 통해 고용과 자원순환 체계를 확대해 나가는 사회적기업입니다.	고철비철금속 가공처리 및 재활용 사업	고용 환경
오티스타	자폐인의 재능재활을 통한 독립생활 및 사회통합 지원	자폐인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디자이너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모든 제품은 자폐인의 그림으로 제작되며 수익금은 이들의 독립생활과 사회통합을 위해 사용됩니다.	자폐인 디자이너 양성 자폐인 그림 기반 상품 제작 및 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오파테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관련 교육 정보 전달, 여가 학습 위업 등으로 정보혁명의 혜택 제공	혁신 기술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소셜 벤처로 전 세계 모든 시각장애인이 더 좋은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통해 다양한 직업과 경제적 기회를 얻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관련 교육 및 정보 전달 제공 (점자 교육 기구 점자 e-book 리더기 제공)	사회서비스
원주노인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스스로를 책임지는 노인문화와 경제적 제고를 위한 일자리 제공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게 하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과 봉사의 정신을 물려주어 다음 세대들이 아름답고 건실한 세상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노인 대상 청소 소독 방역 등 일자리 제공	고용
이든밭상	고령자 다문화 국민기초 가정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소농 지역농산물을 활용, 고부가치 제품을 만들어 지역사회 소득 보전	이든밭상은 농축수산물 가공을 통한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지역사회의 소득 보전 지역 아동들의 장학금 해결 및 지역봉사 실현을 미션으로 합니다.	농축산물 가공업 및 돈까스 떡갈비 등 식품 제조	사회서비스 고용
이레인택	함께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기업	탈북민 결혼 이민자 등 취약계층을 고용하여 제조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LED 조명 제조 및 유통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추억극장 미림	실버문화 복지서비스를 통한 세대소통 문화공간 운영	인천 최초 유일한 고전영화관 추억극장 미림은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지역사회 문화진흥과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협력하여 책임 운영하는 메타 사회적기업입니다.	실버영화관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일하는사람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자원순환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상품 광어를 발효시킨 친환경 비료 생산으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비상품 광어를 발효시킨 친환경 비료 생산 및 판매	고용 환경

제리백	지역과 함께하는 디자인 실천	물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하는 가방을 우간다 지역주민과 생산 NGO를 통해 보급하며 상품판매 수익을 통해 Buy1 Give1 방식으로 우간다 스튜디오를 직접 운영하는 글로벌 소셜 벤처입니다.	가방 및 잡화 제작 및 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주식회사 공공프리즘	이로운 가치가 만드는 문화를 디자인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비전과 문화를 디자인하는 기업입니다.	공공디자인 컨설팅 및 전시기획	사회서비스 사회생태계
주식회사 루미르	고효율 열전발전 제품을 통해 비전력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빛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빛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조명 브랜드로 빛이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기술을 통해 해결하고자 시작해 앞으로도 빛을 통해 가치와 놀라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열전발전 LED 램프 제조 및 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환경
참손길공동체 협동조합	안정적인 시각장애인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시각장애인 안마사 일자리 창출과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위상 정립 및 안마가 필요한 모든 이들의 힐링 파트너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교육 및 안마 서비스 제공	사회생태계
천안돌봄 사회서비스센터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에 기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문인력이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로자에게는 행복한 일터를 이용자에게는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연대와 협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에 기여합니다.	맞춤형 돌봄서비스 및 장기요양 제공	사회서비스 고용
카페티모르	공정무역의 확산과 취약계층 고용	공정무역을 통해 동티모르 커피 농가의 경제적 수익을 증대시키고 국내에서는 위기청소년 대상 바리스타 교육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공정무역 커피 및 카페 운영 바리스타 교육 진행	사회서비스 고용 사회생태계
커스프	우수한 제품과 서비스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듭니다.	상상력을 제품으로 만들고, 제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소셜팩토리 커스프입니다. 광고 홍보물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인쇄 광고물 및 판촉물 제작	고용
커피피아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	고퀄리티 커피원두를 제조가공 하는 전문 로스팅 기업으로 식약처의 HACCP인증 공장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맛있는 커피를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커피원두 제조 및 가공	고용
포이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사업목표로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저탄소 비료 석탄을 대체하는 커피박 고품연료를 생산/판매합니다. 배출권 거래제 사업화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를 대체하는 저탄소 비료와 석탄을 대체하는 커피박 고품연료 생산 및 판매 배출권 거래제 사업화	환경
폼앗이마을 사회적협동조합	로컬푸드 직거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폼앗이 생협과 제휴한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가까운수록 더 신선하고 건강하다는 이념을 기반으로 지역 농가의 얼굴이 있는 먹거리와 인근지역 영세기업의 친환경 생활재 등을 유통합니다.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및 친환경 생활재 유통	고용 사회생태계
한누리	한누리행복한 나눔이 가득한 폼앗이 교육 복지 공동체 실현	지역사회 기반 폼앗이 교육복지 공동체를 구축,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및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경력단절 여성 및 청년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폼앗이 교육 복지 공동체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한마음에프앤씨	착한 장례와 인격적 장례 공장거래를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장례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 장례지원을 통해 소외받는 이들에게도 인격적 장례를 제공하며 윤리적 소비를 지향하며 공정 거래로 올바른 장례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장례대행 장묘봉안시설알선 장의용품판매	사회서비스 고용
희망만드는 사람들	빛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가계부채를 하나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빛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사회적 과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재무 상담 교육 고금리 전환 대출	사회서비스
희망하우징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실내건축면허를 보유한 건설 사회적기업입니다.	집수리 및 마을 가꾸기 사업 운영	사회서비스 고용

나에게 SPC란?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글로벌 품질을 검증하는 ‘K-기업의 K라벨’

Q01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나요?**

2016년에 처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초기, ‘성인 발달장애인은 오래 일을 하지 못 할까?’ 의문에서 시작하여 해결하고자 했던 소셜 미션은 명확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구체적이지 못했고 수익 또한 내지 못하고 있던 시절이라 당장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던 지원금이 큰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기업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에서는 안정적인 평가가 주류였던 사회적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 평가로 공신력을 부여해주는 시도에 보다 큰 동기 요인이 되었습니다.

Q04

**인센티브의 주된 활용처는
어디인지요?**

저희는 초기에 부족한 인건비 재원으로 활용했으며, 3년차 이후부터는 리스크 관리 재원으로, 매년 신규 아이템 개발 등 기술 개발 재원으로 모두 활용 하였습니다. 기업의 성숙도에 따라 주요 활용처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Q02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 준비 과정에서
조언이나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선 우리 기업의 소셜 미션과 비즈니스 모델이 일치화 되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성과인센티브를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단순히 많이 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순 없지만, 가령 취약계층 고용형의 기업이 기술 개발 위주의 기업이라면, 또는 유통 위주의 도소매 기업이라면 기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고, 또한 기대한 수준에 현저히 못 미치게 인센티브 또한 낮을 수 있기에, 기업의 구조와 해결 구조가 일치하는지를 먼저 고려하여 참여하는 것을 권장 드리고 싶습니다.

Q05

**사회성과를 좀더 높여 인센티브를
늘리고자 한 특별한 노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기업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에 맞는 추가적인 표준값을 설정할 수 있게끔 노력했습니다. 저희 기업은 고용창출형 기업으로 발달장애인 고용 인원과 근속 개월 수로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고체 샴푸를 판매 및 제조하는 사업으로 친환경적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표준값 설정을 통해 사회성과를 더욱 높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Q03

**사회성과 측정을 하면서 좋았던 점,
혹은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요?**

좋았던 점은 인센티브 그 자체와 내부 사기 진작입니다. 약속된 정기적인 일정에 맞추어 정량화 된 사회적 가치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은 현실적인 도움을 넘어서서 내부적으로 사기 진작에도 좋았습니다.

어렵거나 힘들었던 점은 사회적 가치의 표준 값을 설정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개별 사회적기업이 현장에서 창출하는 모든 사회적 가치를 수치화 계량화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창출하고 있는 사회 가치 중 20%, 핵심 가치만 정확하게 계량화 하는 것을 초기 목표로 삼고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량화 작업은 주장이 아닌 근거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사실 현장에 있는 사회적기업 대부분 처음 경험하는 작업일 것 입니다. 특히 미션을 중심으로 창업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를 객관화 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고 힘든 작업일 수 있습니다.

동구발 동구발은 발달장애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셜벤처로, 크게 발달장애인 고용문제 해결, 사회적 부족
노순호 대표 문제 해결 두 가지의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Q06

**사회성과인센티브 측정과 보상
참여 후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 사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대외적으로 우리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의 객관화를 통해 단순히 매출과 이익으로 평가받는 기업 이상의 가치를 자본시장 영역에서 인정 받은 것이며,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일반적인 영리기업의 KPI(성과지표)를 통해 일 잘하는 사람만 있는 조직이 아닌 사회적 가치 또한 KPI에 반영하여 동기 부여 요인을 만들어 사회적기업 조직문화에 걸맞는 인재를 늘려 변화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Q07

**투자를 받거나 지원금 신청 시
SPC측정 결과를 활용한 노하우나
경험담을 말씀해주세요.**

투자유치 과정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물론 투자사의 성향이나 고려하는 펀드의 성격에 따라서 반영 여부는 달랐지만, 투자를 받는 입장에서 해당 자료를 통해 반대로 투자사의 성향이나 펀드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Q08

**다른 지원금에 비교한 인센티브의
장단점,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정해진 시기에 약속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되면서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능동적으로 기업의 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것.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사용처에 대해 간섭하지 않는 것은 지원금이 아닌 말 그대로 인센티브라는 표현에 걸맞는, 다른 지원금 사업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장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대부분의 지원금 사업은 선정이 어렵고 이후 작업은 업무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면, 사회성과인센티브는 선정이 되면 업무 부담은 그 때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쳐야 하는 통과리레이고 앞서 언급한 장점이 너무 커서 단점으로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Q09

**내부 직원이나 수혜자들의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 참여 만족도는
어떠한지요?**

만족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초기에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 하기 위해 표준값을 설정하는 과정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이후에 시간이 더해져 가며 사무국에서도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기업은 객관화 수치화 작업에 학습이 더해지며 만족 시너지는 보다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Q10

**나에게 사회성과인센티브란?
'000이다.'**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글로벌 품질을 검증하는 K-기업의 K라벨이다.



사회적가치연구원, 설립 5주년 기념 행사





지난 4월 19일, 사회적가치연구원(CSES)은 5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남대문로 사무실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이사장(SK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사회적가치연구원 이사회 및 임직원, SK그룹 SV위원회, 행복나래, mySUNI, 한국고등교육재단, 최종원학술원 등 8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이번 5주년 기념 행사는 사회성과인센티브(SPC) 10주년과 사회적가치연구원 5주년을 기념하는 글로리월 제막식, ESG 그림책 전시회, 기념식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글로리월은 사무실 한쪽 벽면에 2013년 SK 최태원 회장이 다보스포럼에서 제안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론칭, 사회적가치연구원 설립 등 5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사진 액자로 장식했습니다.

5주년 기념 ESG 그림책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사회적기업 및 신진작가들과 함께 ESG 핵심 스토리를 그림과 대화체로 구성된 ESG 그림책 10여 권을 전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식에서는 5주년 기념 영상 시사회, 이사장과

함께하는 행복토크, 선물 증정, 감사패 전달 등이 진행됐습니다. 최태원 이사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우리 사회에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루기 위해 설립된 연구원”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 우리 사회에 좋은 자양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설립 이후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연구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가치 측정 체계 개발은 사회적 가치 측정의 표준을 제시하고,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추천합니다!

사회적 가치 측정 및 ESG 연구 · 발간 자료

추천 자료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IMPACT IVM 가이드라인>

2022년 4월

기업이 창출해내는 임팩트를 사전적으로 측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입니다. 글로벌 선도 임팩트 투자기관들이 합의 · 사용하는 방법을 준용하였으며, 특히 투자 현장에서 실무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알리콘의 공유오피스 서비스 직무실>

2022년 6월

임팩트 IVM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알리콘 직무실 서비스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임팩트)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전에 발간한 2021 Impact IVM Report에서는 알리콘이 창출하는 환경 임팩트를 대상으로 서술하였다면, 본 보고서를 통해 알리콘이 창출하는 측정 가능한 모든 임팩트를 표현하였습니다.



<IMPACT IVM 가이드라인>

2022년 7월

임팩트 IVM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사회성과 인센티브 참여 기업 루미르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임팩트)를 측정하였습니다. 임팩트 IVM 과정 중 Management 단계에 집중하여, 루미르가 창출한 임팩트를 추적·관리하는 과정을 소개하였습니다.

추천 자료 사회적 가치 측정 사례가 궁금해요!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

2021년 7월

SVMR 1호에서는 2021년 초부터 SK 그룹 차원에서 진행한 '한 끼 나눔 온(溫)택트' 프로젝트의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했습니다.



<플라스틱 패키징 감축의 사회적 가치>

2022년 7월

SVMR 2호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플라스틱 패키징 이슈를 주제로 기업들의 플라스틱 패키징 감축 사례를 살펴보고, 전과정 평가(LCA)측정을 소개하였습니다.



<국내 첫 사회적가치 실현 앱 '행가래'>

2022년 11월

SVMR 3호는 국내 첫 사회적 가치 실현 앱인 '행가래'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살펴보았습니다. 화폐화성과 기반의 정량적 측정과 인식조사 기반의 정성적 측정 두방식을 통해 '행가래' 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사회적가치측정리뷰(Social Value Measurement Review, SVMR)는 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관련 이슈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CSES의 시리즈 연구보고서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SVMR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측정시도를 통해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논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CSES 발간 자료



<한국인이 바라본 사회문제>

2022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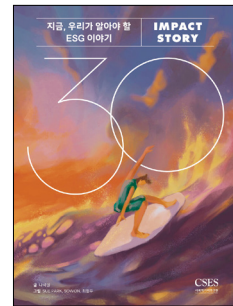
CSES 시그니처 서베이로서 연 1회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 문제 인식조사입니다. 본 보고서는 2020년부터 시행하여, 2022년 3번째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식조사와 함께 미디어 이슈 키워드 100개, OECD 국가 대비 한국 수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의 데이터는 SV Hub 사이트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2>

2022년 10월

CSES는 각 조직·사업이 창출하는 소셜 임팩트를 측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자발적으로 모인 Impact Foundation Learning Communit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는 10개 비영리재단의 임팩트 측정 결과를 담은 Impact Foundation Position Paper 「임팩트 측정의 학습과 연습, Vol.2」를 발간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야 할 ESG 이야기:

Impact Story 30> 2023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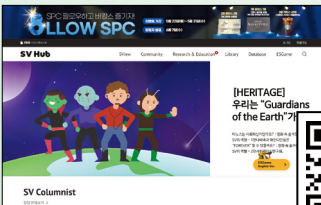
ESG(환경·사회·거버넌스)의 핵심 스토리를 담아낸 그림책입니다. ESG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핵심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스토리는 나석권 원장이 직접 지난 3년간 수집한 ESG 에피소드, 일러스트, 기업 비즈니스 모델 사례를 대화체 형식으로 엮었습니다. 도서 판매 수익금은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사회성과 인센티브(SPC) 기금으로 조성되어 신진예술가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소식을 빠르게 알고 싶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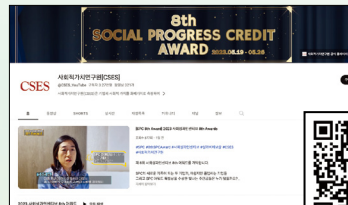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홈페이지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연구원의 주요 사업 및 최근 연구원 소식, 발간 자료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SV Hub

CSES가 만든 국내의 사회적 가치 관련 소통을 위한 통합 플랫폼으로, SV콘텐츠, 연구 DB, SV Library, ESGame 등 사회적 가치, ESG 분야의 연구 결과 및 Data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CSES 유튜브 채널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가치 관련 정보를 짧고 재밌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합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여러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연구원 홈페이지는 물론 SPC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홈페이지, 사회적 가치 관련 통합 플랫폼인 SV HUB, 그리고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 등에서 다채로운 콘텐츠를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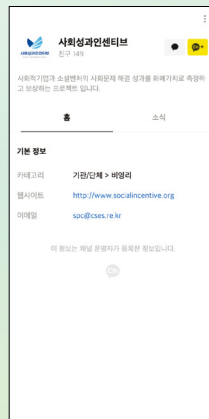
사회성과인센티브(SPC) 홈페이지

사회성과인센티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는 물론 측정 및 참여 방법 안내, SPC 참여 기업 리스트 및 소식, 역대 SPC 어워드, SPC History Museum, SPC 콘텐츠 등 깊이 있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SES 카카오톡채널

CSES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하는 채널입니다.



SPC 카카오톡채널

사회성과인센티브(SPC) 사업에 대한 소식과 SPC 기업들의 생생한 소식을 알리는 채널입니다.



SPC 유니버스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보세요!

사회적가치연구원이 제작한 SPC 애니메이션 시리즈는 대중에게 ESG와 사회적 가치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시즌이 제작되었으며 각 시즌은 아름다운 화풍과 흥미로운 줄거리, 마음을 움직이는 메시지로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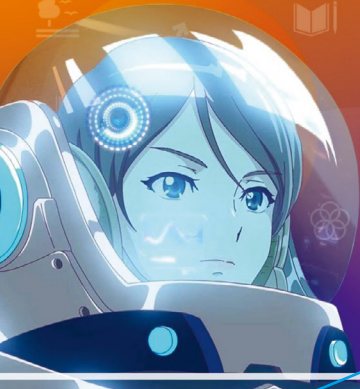
#01

It's time to start
이제 시작이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역대 최악의 재난이 전세계를 덮쳤다. 이를 막기 위해 과거로 돌아간 케이!

사회성과인센티브

5th Social Progress Credit Online Award



Episode 5
IT'S TIME TO START
SEASON 1
“이제 시작이야”



#02

It's time to start
희망의 바다

검잡을 수 없이 오염된 바다와 해양산업이 무너진 미래. 오랫동안 키워온 사업과 딸의 생명이 위험해졌다! 절망적인 미래를 바꾸기 위한 단 하나의 희망은 과연 무엇일지?





It's time to start
달라진 미래

#03

마을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제니.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어렵다! 사람들의 인식과 마을을 지키기 위한 제니의 방법은 무엇일지?



#04

Finding Colors!

삭막한 도심 속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젊은 청년들. 그들의 눈 앞에 홀연히 나타나 지방으로 이끄는 신비의 청년. 지방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꿈을 향해 나아가며 자신들의 색을 찾아가는 알록달록한 이야기.



세상의 사이를 잇는 사회적 가치 SPC 사회성과인센티브

발행일

2023년 6월 9일

발행처

사회적가치연구원(CSES) www.cses.re.kr

기획

사회적가치연구원 박혜수 선임연구원
기획자의 집 홍유정 대표 www.hasca.net

정리 및 집필

사회적가치연구원 박혜수 선임연구원
파라프로젝트 민소연

취재·편집 및 제작

파라프로젝트 www.paraproject.net

사진 촬영

전유진
강신환

디자인

심혜진

교정/교열

오효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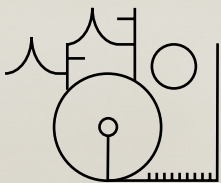
인쇄

영은문화(주)

Acknowledgement

(주)투아트 조수원 대표, 박찬용 팀장
(주)만드로 이상호 대표, 조하현 의지보조기 기사
(주)시지온 김미균 대표
(주)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 배지수 팀장
(주)공감만세 고두환 대표, 노진호 이사
루미르 박제환 대표

<사성인> 기고참여를 원하시거나 문의가 있으신 분은
spc@cses.re.kr로 메일 부탁드립니다.



사성인이란?

사회성과인센티브의 줄임말이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기업과
그 안의 사람들을 뜻합니다.